

# 출판도시를 향한 우리의 여정

파주 책마을 기록사진 1988-2015 | 李起雄 엮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 출판도시를 향한 우리의 여정

파주 책마을 기록사진 1988-2015 | 李起雄 엮음

## 창조적 열정이 만든 꿈의 도시, 出版都市 사진집을 발간하며

혼돈과 무질서로 얼룩졌던 甲午年이 가고 희망의 乙未年 청양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출판도시는 2단계 완성을 위한 막바지 몸짓으로 더욱 역동적인 건설현장이 될 것입니다.

2015년은, 지난 1991년 출판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21세기 출판문화를 이끌어 갈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조합이 발족한 지 26년째 되는 해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출판인들의 꿈은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거치며 어느새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버려졌던 폐천부지는 바야흐로 국내 유일의 국가문화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며 세계인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1988년 北漢山, 그 정상에서 의기투합한 젊은 출판인들과 그들의 출판도시를 향한 굳은 結義를 떠올려 봅니다. 돌이켜보면 출판도시가 걸어온 길이 북한산의 초연한 기개와 참 많이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出版人들은 출판의 기획, 생산, 유통, 이 세 가지 요소를 윈스톱 체계로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고비용 저효율의 출판유통구조를 타파하고자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의 필요성과 기본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출판도시 건설 논의를 시작하고 사업협동조합을 설립, 한국출판산업단지

건설계획안을 수립하며 꿈에 부풀었던 것도 잠시, 한국토지공사의 터무니없는 토지공급가격 책정으로 일산 신도시에 추진 중이던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절체절명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책을 만들고자 했던 출판인들의 간절한 염원과 그를 뒷받침하는 정직한 노력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2007년, 300여 개의 출판, 인쇄, 유통 업체 및 연관기업과 함께 지금의 파주에 출판도시 1단계를 일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1단계의 완성에서 멈추지 않고 2단계로 '冊과 映畫의 도시'를 건설하고자 지난 2006년 문화관광부에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단계 협동화사업의 추진과정에는 관계기관과의 지난한 협의를 비롯하여 너무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국무총리실의 규제심의와 국토해양부의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 지식경제부의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협동화사업자 추천을 위한 평가기준 고시를 거쳐 마침내 2010년 5월 31일 2단계 산업시설용지 중 협동화사업 공급분에 대한 공고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단계 추가 공급분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인 '출판도시 尋鶴山 프로젝트'에 전체 산업용지의 약 11퍼센트에 이르는 16개 회사가 참여하면서 출판도시 2단계 '책과 영화의 도시'에 입주할 기업이 최종 확정되었고, 마침내 2012년 7월, 인쇄사인 스크린그래픽센타가 사옥을 신축하여 첫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출판산업이 집적화된,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는 무수히 많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고비마다 분열의 조짐도 있었지만 하나의 文化共同體로서 묵묵히 시련을 이겨내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출판도시 2단계의 완성을 앞두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보고자 합니다. 방대한 양의 사진과 자료들을 추리면서 이 책의 역은이인 李起雄 파주출판도시 명예이사장의 혜안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도시를 만드는 그 숨가쁜 와중에도 늘 기록의 중요성과 역사의 역할을 고집스레 강조하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가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도시'가 아닌 '역사'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언젠가 北漢山 정상에서 그러했듯, 이 자료집은 미래의 국가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출판도시의 토대를 다져 3단계 북팜시티로 나아가기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출판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할 조합원, 건축가, 그리고 관련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책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2015년 2월

李煥求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상무이사

## 차례

창조적 열정이 만든 꿈의 도시, 出版都市 사진집을 발간하며 李煥求 · 5

### 꿈의 도시를 향하여

- 1988-1989 현실의 벽을 넘어, 원대한 꿈을 향한 山上結義 · 12
- 1990 360여 출판사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다 · 18
- 1991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부지확보 활동의 본격화 · 22
- 1992 일산 신도시 내에 '출판물종합유통센터' 부지를 지정받다 · 26
- 1993 흑독한 시련과 새로운 轉期 · 32
- 1994 출판단지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추진단 결성 · 36
- 1995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명명식 거행 · 42
- 1996 출판단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다 · 46
- 1997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 확정 · 50
- 1998 시범지구 부지매입, 그리고 정부 주최의 성대한 기공식 · 54
- 1999 베를린의 인포박스, 파주의 인포룸 · 58

### 書築共業의 기틀을 세우다

- 2000 건강한 출판문화와 건축문화, '위대한 계약서' · 66
- 2001 건축의 해, 출판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향해 · 74
- 2002 입주의 해, 출판도시 시대의 문을 열다 · 78
- 2003 문화예술행사, 책의 도시 탄생을 알리다 · 82
- 2004 건축전시장이 된 출판도시, 줄을 잇는 방문객 · 86
- 2005 세계가 주시하는 출판산업의 집적화 도시로 떠올라 · 92
- 2006 출판도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 98
- 2007 1단계 협동화사업 완료와 2단계 협동화사업 진행 始動 · 104

## 書築共業의 꽃을 피우다

- 2008 출판도시의 국제화 및 2단계 협동화사업 추진 선포 · 114
- 2009 2단계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하다 · 120
- 2010 2단계 분양 계약을 완료하다 · 126
- 2011 두번째 공동성의 실천, '좋은 계약'을 체결하다 · 136
- 2012 출판도시가 국제적으로 공인받다 · 144
- 2013 2단계 추진에 박차를 가하다 · 154
- 2014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다 · 162
- 2015 신임 이사장의 선출로 2단계 완성을 힘차게 기약하다 · 168

워은이의 발문 · 170

**꿈의 도시를 향하여**  
**'위대한 책의 시대' 를 열어 나가다**



# 1988-1989

## 현실의 벽을 넘어, 원대한 꿈을 향한 山上結義

1980년대는 한국 출판계가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해 가던 시기였다. 출판시장 규모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출판량이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출판산업의 내적 구조는 이러한 외형적인 규모 확대에 걸맞은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고비용 저효율의 유통구조와 전근대적인 상거래 관행을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 뜻이 맞는 출판인들은 정기적으로 山行을 하고 있었다. 주로 李起雄 열화당 대표, 金京熙 지식산업사 대표, 金彦鎬 한길사 대표, 朴孟浩 민음사 대표, 尹炯斗 범우사 대표, 田炳哲 문예출판사 대표, 許昌成 평화출판사 대표, 崔善鎬 청한문화사 대표 등이 北漢山과 道峰山을 오르내리며, 자연스럽게 현대적인 출판유통센터를 건립하지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의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21세기 한국출판의 미래를 가슴에 품고 桃園結義 아닌 山上結義를 한 셈이다. 의기투합한 일부 출판인들의 의지가 등산 모임을 계속하면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가칭)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발기인대회, 심포지엄 등 사업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통해 세를 규합하는 한편, 출판인들의 원대한 꿈을 담은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의 필요성과 기본구상'을 발표한다. 때마침 추진되던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출판단지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함으로써 대정부 설득작업도 시작되었다.



白雲臺·仁壽峰·萬景臺 세 봉우리로 이루어져 三角山으로도 불렸으며, 서울 근교에서는 가장 높고 산세가 웅장하여 예로부터 서울의 鎮山으로 여겨졌던 北漢山.(위) 이 산은 팔십년대 말 몇몇 뜻있는 출판인들에게 책 만드는 이라면 지녀야 할 浩然之氣를 연마하기 위해 오르던 큰 道場이었다. 언제든지 찾아가도 넉넉히 감사 주는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었다. 땀 흘려 오른 어느 산 중턱에서 그들은 책과 문화와 삶을 담론하며 산과 자연의 기운을 호흡했다. 그리고 어느새 가슴속 한편에 '출판도시' 라는 꿈을 싹틔우게 된다. 책 만드는 이에게 북한산은, 이렇듯 원대한 꿈을 품게 하는 스승이었다.

**출판도시를 구상하게 된 출판인들의 1988년 어느 날 정기산행.(아래)**

팔십년대, 李起雄 사장은 평화출판사 許昌成 사장과 북한산을 자주 오르내렸다. 두 사람은 그 후 한국출판인산악회를 조직했고, 많은 출판인들과 북한산을 오르며 호연지기 속에서 책의 꿈을 키웠다. 이런저런 책의 길을 담론하면서 구십년대로 접어들었고, 웅은 책의 길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출판도시를 입안하게 되었다. 뒷줄 왼쪽부터 林仁圭 동화출판사 대표, 李浩雄 전 국회의원, 李恒周, 앞줄 왼쪽부터 尹炯斗 범우사 대표, 許昌成 평화출판사 대표, 金相郁 하서출판사 대표, 李起雄 열화당 대표, 金鎮默 한밭출판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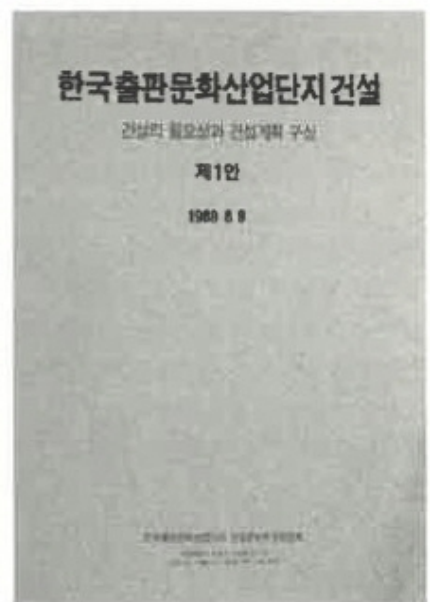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에 대한 제1차 심포지엄 「21세기 한국출판문화산업의 발전전략」 개최.  
프레스센터, 1989. 7. 19.

金炳翼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문학과지성사)의 '출판문화산업단지의 구상과 그 기대',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의 '문화전략으로서의 출판도시', 金炯國 서울대 환경대학원(도시계획) 교수의 '출판도시의 타당성',  
 康炳基 한양대 도시공학과(도시설계) 교수의 '출판도시의 설계' 등 출판 및 건설 전문가들이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金洵, 金禹昌, 許宇桓, 崔炳斗, 鄭丙圭, 金彦錫, 洪起宣, 權寧彬, 成完慶, 白承吉, 金源一 등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건축계, 출판계 인사들이 고루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심포지엄은 출판계 내외에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여 공식화하고, 출판단지 건설의 필요성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출판산업 진흥 차원에서 문화도시 기능을 갖춘 출판단지 건설부지 확보와 총 소요자금 5000억 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출판도시를 조성하면서 만든 각종 기록 자료들(위)과 최초의 계획서(아래). 출판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최초의 자료는 1989년 6월 9일 작성한 10여 쪽짜리 계획서로, 출판계 및 관련업계에 출판단지 건설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건설의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전략 개념안 '21세기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현대화를 위한 전략'이다. 아직은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계획안이었지만, 6장으로 구성된 이 개념안은 우리의 의지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최초의 밑그림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현재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안은 康泓彬 주택연구소장을 비롯한 도시설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계획서 형식에 맞도록 재구성되어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 건설의 필요성과 건설계획 구상-제1안' (아래)이라는 제목으로 8월 9일 발행된다. 추진위원회의 내부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정부 관계부처 및 해당기관들에 제출하고, 출판관련업계에 배포되었다.



# 한문화산업단지건설조합발기인대회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조합 발기인대회.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 1989. 9. 5.

출판 및 관련업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출판단지 건설사업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확인한 이 대회에서, "위대한 책의문화를 창출하자—세계에 내놓아 자랑할 수 있는 문화창출의 공간으로,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내용과 형식을 담아내는 민족문화의 궁지로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를 건설하자"는 내용의 발기선언문을 참석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채택했다. 안건토의에 들어가서는 200여 출판관련업체들이 추진기금 1000만 원씩 각출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준비추진위원장을 맡았던 李起雄 열화당 대표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실행위원 선출을 위한 전형위원으로 權炳奎, 裴孝善, 尹錫金, 許昌成 대표를 선출했다. 이날 대회의 열기는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의 의지를 확연히 드러내 보였으며, 모든 발기인들과 관계자들에게 더욱 확고한 신념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鄭鎭肅 한국출판공고 이사장이 출판단지의 성공적인 대장정을 비는 격려사를 하고 있다.

## '우리는 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를 건설하는가' 발기선언문 요지.

"이십세기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입국 정책, 출판입국 정책을 우리의 중심개념으로 삼아야 한다. 이십일세기는 새로운 과학과 산업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 과학의 시대, 산업의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지식 및 정보산업의 기간으로서 출판산업의 육성은 당연히 요구된다. 출판산업은 이제 책을 쓰고 만들고 읽은 사람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발전하는 국가사회의 보편적 필수조건이다. 격변하는 국제사회를 우리 민족의 것으로 창출해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시각과 감각, 그리고 사상과 논리가 국제화해야 하고, 바로 이 국제화 작업이 출판을 통해 체계적 조직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문화적 직업적 직능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출판문화의 전 과정을 현대화하고 과학화해야 한다. 출판문화의 주체로서 그 창출작업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출판인들은 우리의 문화적 직업적 소임을 다하고자, 그리고 다가오는 이십일세기의 세계를 우리 민족의 것으로 창출하기 위해 우리의 지혜와 열정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를 건설하려 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부착된 현판.

1989. 8. 5.(위)

출판단지의 시작을 대내외에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한출판문화협회 건물 정면에 출판문화산업도시 건설의 이념을 담은 '출판문화산업도시의 건설, 위대한 책의 시대 창출'이라는 대형 현판을 부착했다.

실행위원회 조찬회의, 1989.

(가운데, 아래)

1989년 9월 6일 제1차 실행위원회의를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개최한 이후, 1990년 11월 13일 개최된 마지막 회의까지 모두 49차례 열었다. 그 사이에 23명의 실행위원들은 출판단지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매주 화요일 아침 7시 30분에 회의를 가졌으며, 분과별로 활동했다. 코리아나 호텔에서 崔善鎬, 朴智烈, 尹炯斗, 裴孝善, 朴忠一(가운데 사진 왼쪽부터) 尹靑光, 金京熙, 朴琪鳳, 李起雄, 金彦鎬, 鄭仁哲, 金鍾洙(아래 사진 왼쪽부터) 등이 조찬회의를 갖고 있다.



# 1990

## 360여 출판사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다

1990년은 '문화의 산업화, 산업의 문화화'의 가치를 내걸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려 출판인들의 의지와 비전을 담은 사업계획을 전략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간 해이다. 출판단지 건설사업 추진기구의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출판인들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희망하는 소요 부지면적 및 투자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출판단지 건설계획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설계 방향에 대한 심포지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도시설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한국출판산업단지 건설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1. 서울 도심에서 1시간 이내의 지역, 2. 화물수송을 위한 육로와의 원활한 연계수송 보장, 3. 집단이주가 가능한 대규모 신개발 주거지 인접지역, 4. 도시기반시설의 완비, 5. 저렴한 地價 등이 입지조건으로 제시되었다. 11월에는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로써 사업주체가 정부 인가를 받은 보다 강력한 공인기구로 전환되었다. 23명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는 1년 동안 무려 40여 차례에 이르는 회의와 적극적인 활동을 펴 나간 결과, 출판인들의 열망과 역량을 결집시켜 '실현이 불확실한 환상적인 계획'을 '현실로 다가온 거대한 사업'으로 바꿔 놓고, 조합설립과 동시에 발전적으로 해체되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제2차 심포지움 「출판도시 건설 추진현황과 설계방향」.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 1990. 4. 10.

300여 명의 회원과 관련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포지움은 제1부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朴琪鳳, 비봉출판사), '출판문화산업단지, 정당성과 문제점' (朴杉沃,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책 만드는 도시와 책 같은 도시—좋은 설계를 향한 제언' (黃琪源,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제2부에서는 金炳翼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安建燮(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李康淑(서울대 교수, 작곡), 韓勝憲(변호사), 鄭奇溶(건축가), 金文煥(서울대 교수, 미학), 金京熙(지식산업사 대표), 李種奭(동아일보 논설위원), 金學俊(대통령 사회보좌역) 등 출판계, 학계, 언론계, 건축계, 법조계 인사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창립총회

1990년 11월 16일 (목) 13시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창립총회.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 1990. 11. 16.

'출판도시 건설추진위원회'가 1년 2개월여 동안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사업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 새롭게 탄생된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은, 그동안 임의단체였던 추진위원회와는 달리 법적으로 그 실체를 인정받게 될 뿐만 아니라 출판단지 건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 설립됨으로써, 민간단체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며, 1.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공동사업자금지원, 중소기업공제기금지원, 중소기업협동화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고, 2. 세제 면에서는 조합원들이 당기순이익에 대한 혜택(법인세율 12퍼센트), 조합비 또는 회비의 손금인정, 개발부담금 감면, 이자수입 원천징수의무 면제, 공동시설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일부 감면, 채권매입의무 일부 면제 등의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사업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계기로 그동안의 추진위원회는 자동 해산되며 모든 재산과 권리는 사업협동조합으로 넘어가게 된다. 창립총회에서는 21세기 위대한 출판문화산업의 창출 직업에 나서면서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한다는 취지문이 발표되었는데, 중소기업법에 의거 제정된 정관을 채택하는 등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사업을 조합의 체제로 운영해 나가는 틀을 마련한 것은 커다란 업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날 許萬逸 문화부 차관은 "출판단지 건설사업의 주체로서 책임과 확신을 갖고 정진해 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격려사를 했다.



강남구 신사동 강남출판문화센터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가진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추진위원회 현판식과 축하 리셉션. 1990. 7. 18. 추진위원회 발족 1주년과 사무국 확장 이전을 자축하는 '회원의 날' 행사와 함께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추진위원회의 현판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許萬逸 문화부 차관은 격려사에서 "민간인 스스로 참여하여 건설하려는 출판문화산업단지는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꼭 이룩해야 할 사업이므로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협조를 하겠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했다. 아래 사진 왼쪽부터 許昌成 평화출판사 대표, 金炳翼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許萬逸 문화부 차관, 金光仁 문화부 어문출판국장, 尹炯斗 범우사 대표,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



# 1991

##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부지확보 활동의 본격화

1991년은, 임의단체였던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 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해였다. '산업단지 개발 시행' 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은 정부 관련부처에 출판단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산 신도시 건설지구 내에 적정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 黃琪源 교수에게 의뢰하여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기본구상' 을 작성, 문화부, 건설부, 한국토지개발공사, 고양군 등 관련기관과 활발한 접촉을 지속했다. 비록 신도시 개발계획의 지연으로 1991년에 해당 토지의 매각이 실시되지 않아 토지매입 계약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출판 관련 시설용지를 공급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출판물종합유통센터 부지를 공공시설용지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제1차 정기총회. 마포 한국출판협동조합 회의장. 1991. 2. 2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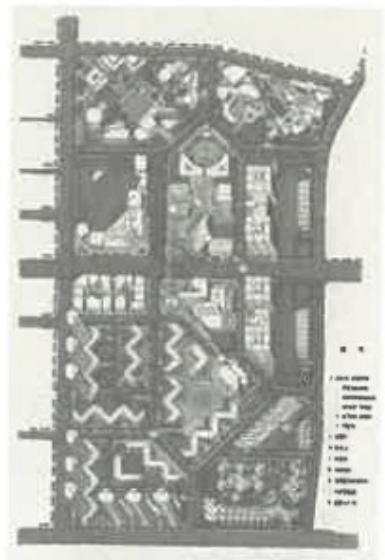
사업협동조합으로 승인된 후 첫 정기총회로, 1991년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안, 예산회계규약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1991년 기재한도액 500억 원이 통과됨으로써 출판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뜨거운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실행위원들의 趙宰鎭 고양군수 방문. 1991. 10. 26.(아래 왼쪽)**

이사와 실행위원들이 趙宰鎭 고양군수를 방문하여 출판단지 건설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1991. 1. 8.(아래 오른쪽)**

그동안 추진해 온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사업이, 1990년 11월 16일 창립총회 개최 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주무관청장인 경기도지사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이날 인가받게 되었다. 이는 이 사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체에 의해 추진된다는 큰 명분을 획득했음을 의미한다.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기본계획 토론회. 엠배서더 호텔. 1991. 5. 9.(위, 아래 왼쪽)**

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 소장과의 계약체결 후 조합 임원진과 전문가들은 수차례에 걸쳐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협의하는 바쁜 일정을 보냈다. 토론회 과정을 통해 기본계획 설계는 여러 차례 수정 보완되었으며, 토론회는 시간 절약을 위해 주로 조찬 모임으로 진행되었다. 엠배서더 호텔에서 가진 두번째 기본계획 설계 토론회 의회에서 黃琪源 교수(위 도판 맨 왼쪽)가 설명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팀 金安濟·黃琪源 교수, 국토개발연구원의 安建燮 수석연구원과 조합 임원 李起雄 이사장, 柳道烈 상무이사, 裴孝善·尹炯斗·許昌成 실행위원장, 朴琪鳳 재정간사, 姜海作·金熒允·安尙秀·崔善鎬 건축위원들이 참석하여 기본계획 작성과 주요 지침을 논의했다.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기본구상 최종 조감도. 1991. 7. 9.(아래 오른쪽)**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로부터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기본구상 최종 보고서와 조감도를 접수하여, 출판단지 건설에 대한 기본구상을 정부 관계기관과 출판 관련 단체, 언론기관, 전 조합원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확정했다.



**李御寧 문화부 장관과의 면담.**

**1991. 12. 10.(위)**

李起雄 이사장이 李御寧 문화부 장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부 장관은 관계장관과 출판단지 추진에 대해 최종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조흥은행 본점 임원과의 간담회.**

**1991. 4. 10.(아래)**

許昌成, 裴孝善 실행위원장과 朴琪鳳 재정간사, 柳道烈 상무이사가 조흥은행 본점 임원 (강태두 전무, 禹昌穆 상무, 李康隆 지점장, 李泰浩 차장)과 간담회를 갖고 출판단지 건설 관련 향후 재정계획에 관해 논의했다.



# 1992

## 일산 신도시 내에 '출판물종합유통센터' 부지를 지정받다

1992년은,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출판물종합유통센터 부지의 공공시설용지로 일산 신도시 동남쪽  
업무지구 내에 33,581평을 지정받아 기본구상의 재배치 계획(안)  
수립과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주력한 해였다.

일산 신도시 내에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되었으나,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부지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됨에 따라 조성사업의 공공성을 대내외에  
알려 공급방법을 조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출판물종합유통센터의  
공공성이 해당부지의 가격에 반영되도록 문화부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조합이  
수용하기 어려운 공급가격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조합은 대통령 이하  
관계부처 장관과 3당 대표, 국회의장, 건설·문공·경과위원회  
위원들에게 출판·문화 관련 단체장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출판물종합유통센터 부지의 계약체결이 지연될 것에 대비하여 조합은  
고양시에 우선 시급한 창고시설, 물류 터미널 등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할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수도권 일원의 30개  
지역 이상을 답사하는 등 제3의 부지 물색 작업도 병행하였다.



**출판물종합유통센터 일산 현장부지 답사.**

**고양시 鼎鉢山 平心樓. 1992. 8. 18.**

조합원, 출판관련단체장, 언론사 기자 등 200여 명이 출판물종합유통센터 일산 현장부지를 답사하고 설명회를 가진 후, 鼎鉢山頂에서 추진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 일산 직할사업단은 출판단지뿐 포함한 일산 신도시 전체 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제2차 정기총회.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 1992. 2. 26.**

전체 조합원사 가운데 234개사 대표가 참석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1992년도 수지결산서를 승인하고, 출판단지 부지확보의 전망이 밝아짐에 따른 매입계약과 재정확보 방안 그리고 건설계획 등의 주요 의안들이 승인되었다. 또한 정부의 출판산업 연내 개방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출판단지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유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3년 임기의 이사장 선출에서 현 **李起雄**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 **李起雄** 이사장(가운데 왼쪽), **崔善鎬** 세계사 대표(가운데 오른쪽), **金京熙** 지식산업사 대표(아래 왼쪽), **許昌成** 평화출판사 대표(아래 오른쪽)가 진행 및 발표, 질의를 하고 있다.

출판물종합유통센터 조성을 위한  
연찬회. 강남출판문화센터 이벤트를,  
1992. 6. 3.

1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물유통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에스티엠,  
삼성데이터시스템, 동진정보통신),  
'물류 터미널의 건설과 향후  
사업추진방안' (삼성항공 물류연구소,  
현대엘리베이터 FA사업부),  
'출판물종합유통센터 설계와 건설의  
주요과제' (서울대 黃琪源 교수) 등의  
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본 행사에 앞서 金東虎 문화부 차관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아래)





**이사 연찬회.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 1992. 7. 11-12.(위, 가운데)**

출판물종합유통센터 설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조성방법 및 운용에 관해 검토해야 할 세부사항들을 이사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12일까지 이사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미 확보한 부지를 매입할 자원확보와 기획단의 결성 등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서울대 黃琪源 교수가 '출판물종합유통센터 및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조합 權泰旭 기획실장이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현황'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관련 단체장 간담회, 1992. 2. 19.(아래)**

출판단지 조성사업이 '유통산업근대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부지가 확보될 전망이 높아짐에 따라, 출판관련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일산 신도시의 새로운 후보 부지 답사.**  
1992. 7.(위, 가운데)

출판단지 건설을 위한 새로운 사유지  
예정부지를 답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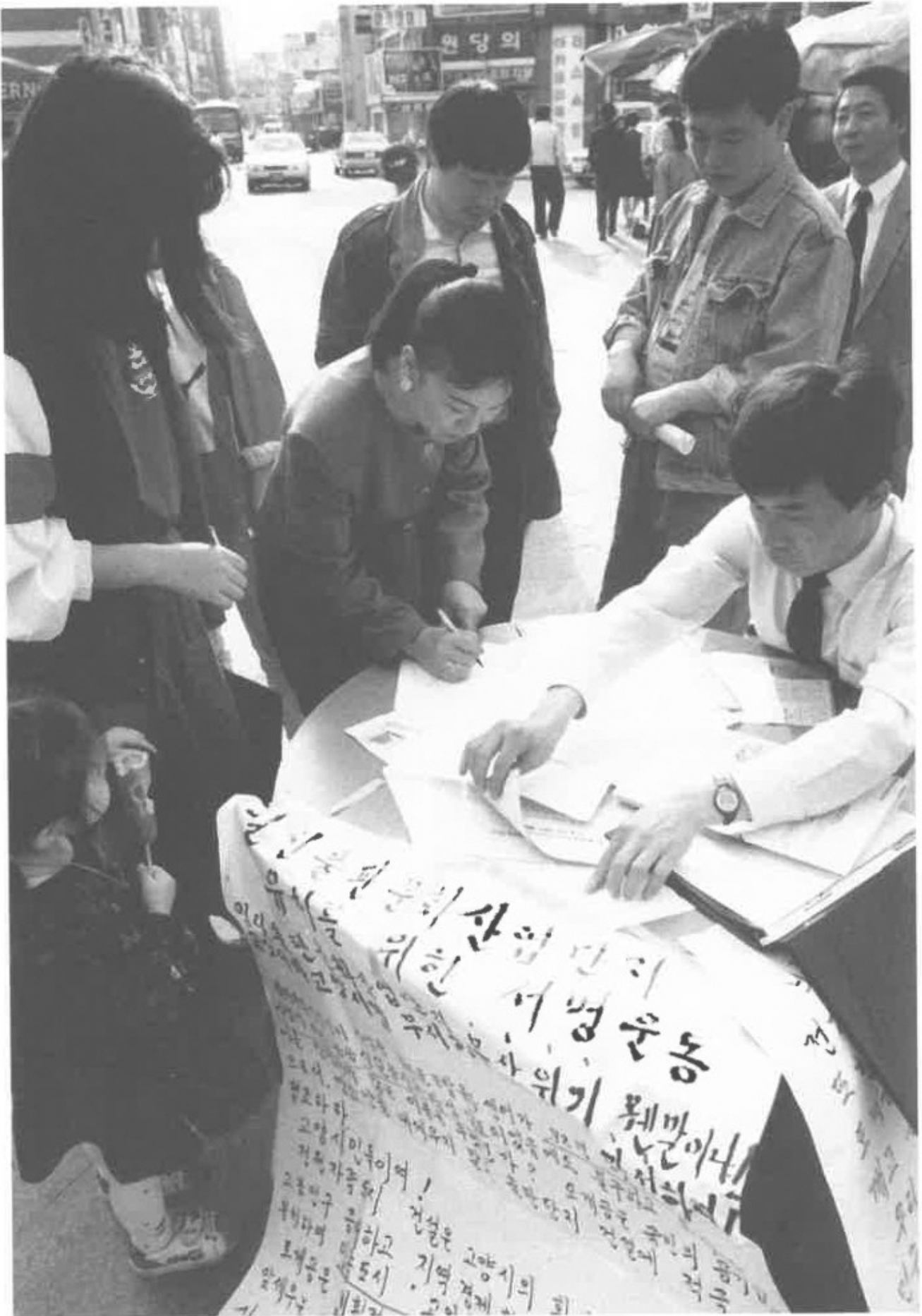
**수도권의 새로운 출판물종합유통센터  
부지 현장 답사. 1992. 12. 17.(아래)**  
왼쪽부터 尹炯斗 범우사 대표, 李起雄  
이사장, 許昌成 평화출판사 대표,  
柳道烈 상무이사.



# 1993

## 혹독한 시련과 새로운 轉期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공급 가격을 지나치게 고가로 책정하는 등 정책적 혼선이 빚어짐에 따라 부득이 사업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따라서 문민정부에 출판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시켰고, 7월 16일 중소기업 대표 초청 청와대 조찬간담회에서 李起雄 이사장이 金泳三 대통령에게 직접 출판계 현황을 보고하면서 출판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을 계기로 정부는 조합의 추진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게 된다. 이로써 부지 확보 대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이어 10월, 국회 문공상임위원회의 문화체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출판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심도있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유치물 위한 1만 명 서명운동. 1993. 3. 27.

고양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문화도시로서 성장 발전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했던 출판문화산업단지 조성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하자, 고양시민회에서는 출판단지 유치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1만 명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제3차 정기총회.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1993. 2. 23.**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일산 신도시 내 출판물종합유통센터 부지의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현장답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기도 파주군 야당리 일대의 사유지를 슬라이드로 설명하는 등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주요하게 다루었으며, 1993년도 사업계획서(안) 등 모두 9건의 의안이 승인되었다.

### 중소기업 대표 초청

청와대 조찬 간담회, 1993. 7. 16.(위)

李起雄 이사가 중소기업 대표 초청 청와대 조찬간담회에 참석하여, 한국출판계의 현황 설명과 함께 출판단지 건설의 시급성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요청했다. 金泳三 대통령은 이를 설득력있는 요청으로 받아들였으며, 곧 경제수석을 비롯한 실무진들과 구체적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 1993년도 국회 문화체육공보위 국정감사, 1993. 10. 5.(가운데)

국회문화체육공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蔡映錫·朴啓東·朴智元·林采正 의원은 일산출판단지의 건설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문제 삼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사업추진이 부진한 점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와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랄한 비판을 하였다. 국정감사에 앞서 일산조합 대표로 金彦鎬 한길사 대표(맨 왼쪽)가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출판계 원로 초청 간담회,

1993. 12. 1.(아래)

李起雄 이사가 출판계 원로인 姜周鎭(前 국회도서관장, 前 독서신문사 사장), 金源大(계몽사), 朴信垞(세광음악출판사), 孫永壽(전파과학사), 李謙魯(통문관), 李瑗薰(보성사), 鄭鎮肅(울유문화사), 趙相元(현암사), 崔德敎(창조사), 崔元植(한국교육출판), 韓萬年(일조각) 대표를 초청하여, 출판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해, 당초 일산 신도시에 대상 부지를 확보했으나 토지가격 문제로 포기하고, 새로운 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조언을 들었다.





# 1994

## 출판단지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추진단 결성

정부가 출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육성책으로 출판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큰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 상반기에는 문민정부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이끌어내는 데 전력했다.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시로 공영개발계획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7월 1일 김영삼 대통령이 비경제부처 실·국장들에게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출판단지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도록 특별 지시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추진사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는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에 42만 3000평(유수지 제외) 규모의 출판단지 조성의 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문화체육부 차관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사업추진단'을 결성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조합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현 파주출판도시 위치에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발주 및 조사 설계용역의 공모 등 건설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시켜 나갔다. 한국토지공사의 일방적인 가격으로 공고함으로써 우리 조합에서는 일산 신도시에 계획된 예정 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 다시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柳道烈 상무가 자유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자유로 주변을 조사하게 되었다. 심학산 앞 문발리 부근에 폭우시에 상부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을 담수하는 시설과 샛강 양편의 농경지를 발견하게 되어 잠정적인 후보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파주군을 방문하여 향후계획을 확인한바 막연하게 수목원 조성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개인사유지로 야당리, 동패리, 서패리 등 여러 곳을 조사하였으나 군 작전지역으로 계획을 추진할 수 없어 고민하던 때에 한국토지공사에서 파주군에 문발제 폐천부지를 양여받으려는 내용을 입수, 국유지 77필지, 사유지 62필지, 총면적 42만여 평의 폐천부지 범위 내에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현 출판도시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파주 부지 전경(위)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사업추진단의 현장 답사(아래). 1995. 9. 8.

李起雄 이사장과 柳道烈 상무이사가 문화체육부 金道鉉 차관과 42만 3000평의 파주 현장 부지를 답사하고 건설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제4차 정기총회, 세계일보사 국제연수원 강당, 1994. 2. 17.(위)**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부지매입 전까지 긴축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임기가 만료된 姜熙一(다산출판사 대표), 朴琪鳳(비봉출판사 대표) 감사를 유임시키기로 하는 등 모두 9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金泳三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의 글'을 조합원 만장일치로 채택, 사업추진에 대한 우리의 굳은 결의를 천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金大中 아시아태평양문화재단 이사장과의 만남, 1994. 7. 6.(아래)**

李起雄 이사장이 金大中 아시아태평양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출판계의 현황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개발구상(안)'을 설명했다. 출판단지 건설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각계의 주요 인사들과의 자리를 마련하여, 이 추진사업의 중요성과 건설계획(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긴급 이사회. 강남출판문화센터 이벤트홀. 1994. 8. 22.**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대정부 건의 등 사업 촉진을 위한 긴급 이사회가 수시로 열렸다. 이날은 이사장과 상무이사, 12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참석하여, 조합원 신규가입사 승인의 건, 사업기획본부장 및 위원 선임에 관한 건, 94년도 과목간 조정 예산안 승인의 건, 출판단지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에 관한 건, 조합원 설명회 개최에 관한 건 등을 의결했다.

#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기본구상을 위한 심포지움

주최: 문화체육부 상공자원부 / 주관: 한국출판연구소  
 일시및장소: 1994년 9월 12일 (월) 14시 / 국립중앙박물관 강당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본구상을  
 위한 심포지움.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1994. 9. 12.

출판단지 건설사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장 효율적인  
 문화산업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문화체육부와 상공자원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출판연구소가  
 주관한 이 심포지움에는, 출판관련  
 인사와 관련부처 실무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李御寧 전 문화부 장관,  
 金彦鎬 기획본부장과 鄭煜 대원동화  
 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金京熙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權度燁 건설부 입지계획과장, 李恩錫  
 상공자원부 산업진흥과장, 李勝奎  
 문화체육부 출판진흥과장, 李喆  
 국회의원, 金鎭浩 한국토지개발공사  
 공단1처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黃琪源  
 교수, 朴琪鳳 비봉출판사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합원들의 출판도시 현장부지 답사 및 설명회.**

**1994. 11. 4.**

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군 문발리 현장에서 설명회가 열렸다. 참석한 조합원들은 壽鶴山이 마주 보이는 42만 3000평 현장을 돌아보며 출판단지 건설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나름대로 출판단지의 미래상을 그리며, 그동안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고 정진해 온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를 다졌다. 李恒周 부장과 柳道勳 상무이사가 단지 배치도를 보며 설명하고 있다.(아래)



# 1995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명명식 거행

1995년 10월, 우리 조합은 문화체육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공동으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명명식'을 성공적으로 거행함으로써 출판단지 조성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명명식은 이 사업에 대한 정부 당국의 추진 의지가 확고함을 천명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아울러 출판단지 조성의 가장 어려운 현안이었던 군사시설 보완협약이 조합의 주도로 타결점을 찾았다. 이에 앞서 우리 조합은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초조사연구' 용역을 완성하여 단지의 기본구상과 상세계획의 토대와 틀을 마련했으며,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성토공사 착수에 이어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다산컨설팅트와 체결, 1996년 1월 4일부터 본격적인 설계업무에 착수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출판단지가 수도권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처럼 필요한 행정절차와 현장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이라는 공식적인 행정절차만 남게 되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명명식 개최. 파주군 교하면 문발리. 1995. 10. 20.**

이 행사는 그동안 다양하게 불리던 단지의 명칭을 공식화하여 이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사업추진 의지를 추스르자는 목적으로 정부 사업추진단과 조합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정관계를 비롯한 언론계, 문화계, 학계 등이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인사 및 외부인사 264명, 조합원 182개사 214명, 지역주민 84명 등 모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터벗음 공연, 告由祭, 무형문화재 남사당의 '길놀이', 국립창극단의 합창 '성주풀이', 서울 가무악예술단의 '신명의 북소리' 등의 다양한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왼쪽부터 金宗圭 삼성출판박물관장, 李孝桂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朱燮植 문화체육부 장관, 鄭鐵肅 한국출판금고 이사장, 李仁濟 경기도지사, 李起雄 이사장, 宋達鏞 파주군수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아래 왼쪽)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제4차 정책포럼, 1995. 11. 27.(위)**

李起雄 이사장이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정책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중소기업의 문제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기획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중소사업자 경영애로 종합상담회, 1995. 9. 21.(아래)**

李起雄 이사장이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 주재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지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사업자 경영애로 종합상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李起雄 이사장은 명명식 행사 협조를 당부하고, 출판단지 조성과 관련해 행정규제를 완화해 줄 것과 함께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국고지원을 요청하여 익년도 예산에 200억 원을 반영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국방 당국의 동의를 얻기 위한 현장 설명회. 1995. 4. 27.(위)**

출판도시가 입지여건상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국방 당국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壽鶴山 군 범커에서 기본구상 설명회가 열렸다. 李起雄 이사장을 비롯해 金道鉉 문화체육부 차관, 청와대 국방담당비서관, 합동참모부 작전본부장 金東信 중장, 3군작전처장 曹南鎭 준장, 제1군단장 김척 중장, 제9사단장 邊浩仁 소장, 金允起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안에 대해 현장 검토·협의했다. 출판문화산업단지 기본구상에 관해서는 서울대학교 黃琪源 교수가 설명하고, 軍側에서는 9사단 29연대장 김선범 대령이 군작전계획과 현장 사정을 브리핑했다.

**군부대 동의를 지원한 趙成台 장군과 朴義緒 출판단지 고문. 1995. 6. 15.(아래 왼쪽)**

이사가 朴義緒 출판단지 군사고문(왼쪽)과 함께 2군사령관 趙成台 장군(오른쪽)을 만나 출판단지 조성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군부대 관련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출판단지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 관내 행정기관장 및 관할 군부대와의 협력이 지속되면서 집행부의 꾸준한 설명과 설득으로 하나둘씩 문제를 풀어 갔다.

**李仁濟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 1995. 7. 29.(아래 오른쪽)**

李起雄 이사가 黃琪源 교수, 鄭京相 소장과 함께 李仁濟 경기도지사를 방문하여 단지 조성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 1996

## 출판단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다

1996년은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였던 군 당국과의 협의와 공업지역 지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는 해였다. 1월에는 단지 내의 핵심시설인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건립·운영을 책임질 한국출판유통주식회사가 국내 출판계 최대의 자본규모로 설립되었다. 또한 2월 정기총회에서는 조합의 명칭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으로 변경함으로써 출판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기본 틀을 새로 다졌다.

3월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업 추진에 관한 최종 협의를 이루어져, 총면적 48만 평(158만 4,000제곱미터)의 부지를 출판지구와 출판영상정보지구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원칙을 세우고 1단계로 출판지구를 건설한다는 개발계획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본설계 및 상세계획까지 완료했다. 12월 10일에는 정부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48만 평 가운데 30만 평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설교통부는 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감으로써 출판단지 조성사업은 명실상부한 국가적 문화전략사업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며 본격적인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군 당국과의 성공적인 업무협약과 수도권 내 공업지역 지정이라는 두 가지 큰 결실을 거둠으로써 단지 조성 현실화의 기반을 확고히 다진 의미깊은 한 해였다.



**제6차 정기총회. 세계일보사 국제연수원 강당. 1996. 2. 14.**  
 이 총회는 조합의 명칭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고, 임기 만료된 감사에 姜慶中(뿌리와날개 대표), 俞大琪(흥익미디어 대표) 조합원을 신임 감사로 선출하는 등 출판단지 조성사업 추진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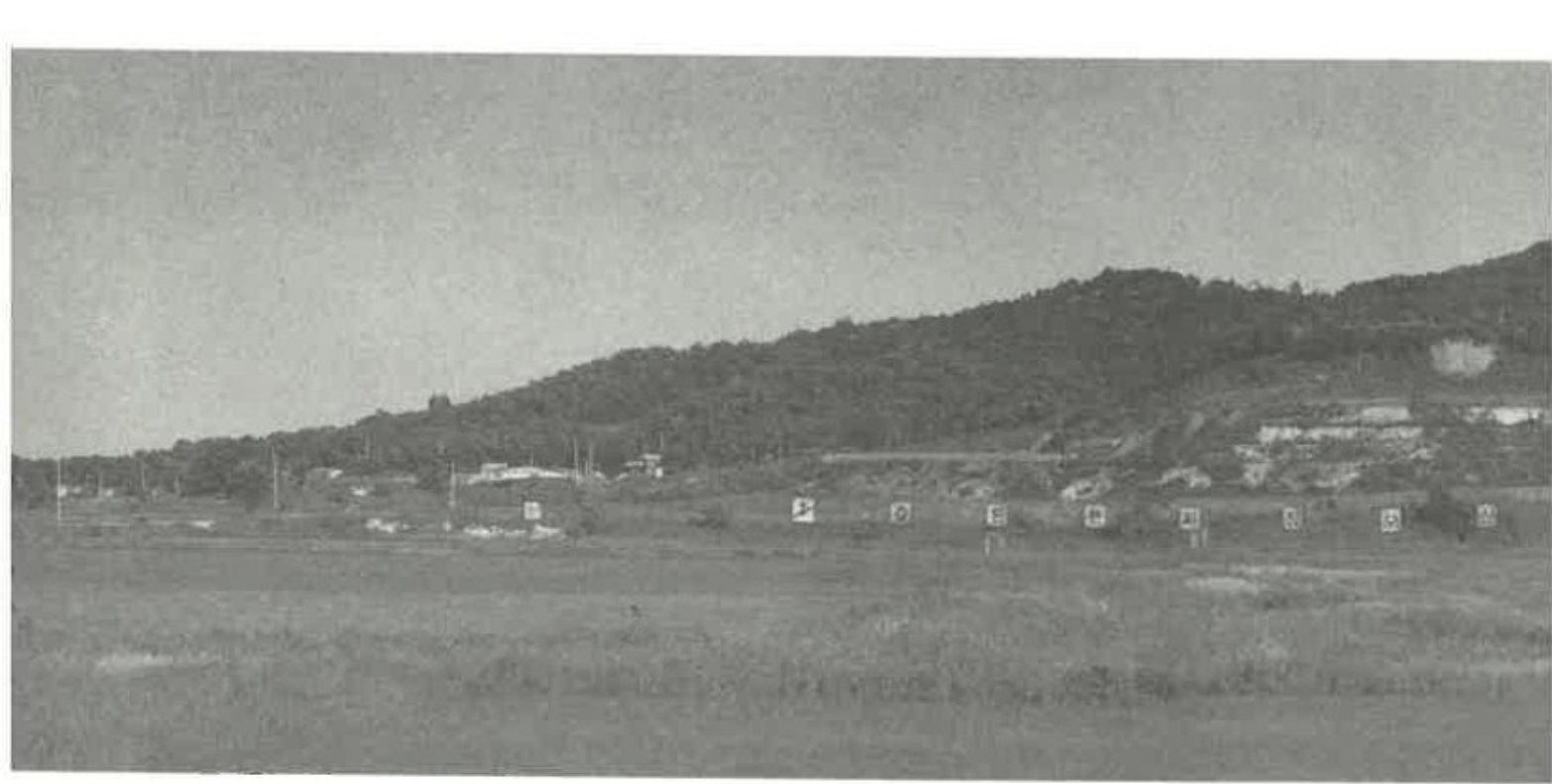
**국제출판협회(IPA) 일행 현장 답사.  
1996. 5. 23.**

국제출판협회 사무총장 알렉세이 쿠츠모프 씨가 조합을 방문하여 출판단지 건설계획을 브리핑 받은 후 현장을 답사했다. 외국의 출판문화계에서도 파주출판단지 조성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조합을 방문, 추진현황과 건설계획 등에 관해 문의하는 한편, 현장을 답사하기도 했다. 특히 외국에도 유례가 없는 복합적인 출판도시의 건설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해 왔다.



金大中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출판·서적계 대표 초청 간담회. 1996. 10. 26.

李起雄 이사장이 교보문고에서 열린, 새정치국민회의 金大中 총재 주재 출판·서적계 대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출판·서적계 6대 현안 중 출판단지 건설사업 지원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특히 金大中 총재는 출판단지 건설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1997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 확정

1997년 3월 31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면서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향후 사업추진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4월에 한국토지공사가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실시계획이 각 부처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무려 8개월이나 소요되어 12월 31일에야 최종 승인됨에 따라 기반공사 착공과 용지매입 등 주요사업 목표 또한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추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와의 다각적인 논의를 펼치는 한편, 출판물종합유통센터의 건립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등 추진과제들을 점검 보완하는 작업을 서둘렀다.

또한 단지의 핵심 문화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건설에 필요한 기본구상을 (주)건축환경연구소 광장(대표 金洵)에 맡겨 작성하고, 이 기본구상을 토대로 180억 원 규모의 투자 자금 중에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6억 2,100만 원을 1998년도 정부예산에서 우선 확보하는 큰 결실을 거두었다. 이렇듯 1997년은 국가산업단지 지정·고시에 이어 실시계획 승인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짓고,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출판단지의 위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부지 조성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모습. 1997.**

1990년대초 자유로가 건설된 후 홍수예방을 위해 설치된 펌프장의 모습이 보이는 초기의 출판도시 현장 모습이다.






**106**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필리핀 국가도서개발위원회 위원장 일행 방문. 1997. 5. 15.(위)**

필리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도서개발위원회(NBDB) 위원장 일행이 조합을 방문, 李起雄 이사장으로부터 출판단지 건설계획 및 사업추진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상무이사의 안내로 파주 현장을 답사했다.

**울곡문화제 출판도시 홍보부스. 1997. 10. 12.(아래)**

파주 '울곡문화제'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중소기업 상품박람회에 초청받아 행사기간 중 출판도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를 계기로 관내 주민들에게 파주출판단지 조성사업과 책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엽서와 책갈피 등을 만들어 행사장을 찾은 이들에게 배포했다.

**李在昌 파주시 국회의원, 宋達鏞  
파주시장과 현안 추진에 대해 협의.**

**1997. 1. 16.(위)**

李起雄 이사장과 柳道烈 상무이사가 파주시를 방문하여 宋達鏞 파주시장과 李在昌 파주시 국회의원을 만나 대체농지 지정 및 주거단지 건설계획 등 단지 건설추진상의 제반 과제를 협의했다. 파주시 부시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英九 도시과장이 배석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본계획수립 기자 간담회.**

**1997. 8. 12.(가운데, 아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기본계획구상안을 알리기 위해 인사동 목련에서 중앙일간지와 방송국 문화부 기자들과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 1998

## 시범지구 부지매입, 그리고 정부 주최의 성대한 기공식

1998년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의 첫 삽을 뜬 역사적 해이다. 1998년 8월 31일, 한국토지공사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시범지구에 대한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는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1989년 6월 출판단지 추진위원회 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열악한 출판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출판관련산업의 협동화사업계획' 을 시작한 지 꼭 10년 만에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일대에 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범지구 부지매입 계약체결을 기점으로 기반시설공사 업체 선정, 기반시설공사 착공식에 이르기까지 지난 10여 년간 그려 온 우리의 꿈과 이상이 하나둘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金鍾泌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및 정계, 출판계 인사와 일반인 1000여 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치러진 기공식은 문화관광부 및 건설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주관하는 정부행사로 개최되어, 출판단지가 명실상부한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됨을 대내외에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기공식을 기점으로 향후 구체적인 건축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출판단지 시범지구 건축을 위한 심포지엄 및 공모전을 개최하는 한편, 해외 현지답사를 통한 사례조사를 위해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부지매입 계약체결, 운영주체인 '사단법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발족을 위한 정부부처 및 한국토지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으로 분주하게 달려왔다. 이 밖에도 '책마을 갈대셋강' 보전을 위해 환경보전운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중정화운동을 벌이는 등 대내외적으로 '문화산업단지' 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정립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공식, 1998. 11. 20.**

열악한 출판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출판관련산업의 협동화사업계획'을 시작한 지 꼭 10년 만에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일대에 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 공사가 착공되었다. 정부 주도하에 성대하게 개최된 기공식에는 金鍾泌 국무총리를 비롯, 문화관광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관계 국회 상위 위원장, 각계 인사들과 조합원, 파주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하여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기원했다. 기공식이 끝난 후 조합 李起雄 이사장이 출판단지가 첫 삽을 뜨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은 金道鉉 前 문화체육부 차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金鍾泌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아래)





갈대셋강 현장 및 수중 오물 상태 점검. 1998. 5. 16.(위)

파주 거북스쿠버회와 출판단지 조합이 공동주관하여 「책마을 갈대셋강 수중정화운동」 행사를 갖고 맑은 갈대셋강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책마을 갈대셋강 환경보전운동 및 세미나. 1998. 3. 29.(아래)

파주출판단지의 중심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천혜의 갈대셋강이 심각하게 병들어 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인식이 모아져, 조합과 환경운동연합, 파주시의 공동주관으로 「책마을 갈대셋강 환경보전운동 및 세미나」가 현장에서 개최되었다. 조합원을 비롯, 환경운동연합 회원, 파주시 인근 주민, 군부대 병력, 공무원, 보도진 등 5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갈대셋강의 소중함과 보전 필요성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미나에서는 崔政權 경원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자연친화적 출판단지 조성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진지한 토의가 진행됐다.



**사단법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창립총회.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 클럽. 1998. 12. 1.(위, 가운데)**  
 이날 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洪一植 고대민족문화연구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출판단지부지 매입계약.**

**1998. 8. 31.(아래)**  
 한국토지공사 파주직할사업단 徐正源 단장, 朴貞錫 판매부장과 조함 李鍵馥 이사, 林成圭 감사, 柳道烈 상무이사, 李恒周 부장이 참석하여 파주출판단지 내 시범지구 5만 1,569평(출판지구 2만 2,093평, 인쇄지구 6,176평, 유통지구 2만 3,300평)에 대한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했다. 매입금액은 308억 1,747만 원(5년간 10회 분할 납부)이고 입주사는 55개사이다. 이로써, 1989년 6월 출판단지 추진위원회 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추진해 온 파주출판단지 조성사업의 한 매듭이 비로소 풀리게 되었다.



# 1999

## 베를린의 인포박스, 파주의 인포룸

1999년은 시범지구에 이어 2차로 1단계 개발지구 잔여면적 6만 157평을한국토지공사로부터 모두 매입, 계약을 체결해 입주사들의면적 및 위치를 확정함으로써 토지배정사업을 마무리했다. 이어 이상적인 건축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출판단지 건축기본설계지침 작성을 완료했고, 국내외 건축답사를 통해 현장에서 집중토론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사옥설계를 위한 건축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인포메이션센터인 인포룸 건축은 대내외적으로 출판단지 조성을 알리고 각종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범 출판업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늦게나마 입주에 동참하는 등 사업추진이 절정에 달한 해이기도 했다. 아울러 출판도시 핵심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및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공동주택 등의 건립계획과, 교통·환경 등 출판도시 내적인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해로서,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위기가 곧 기회라는 출판인들의 단합된 의지로, 준비해 온 일들을 하나하나 실현해냄으로써 출판도시 건설에 주요한 매듭을 짓는 뜻깊은 한 해였다.



**파주출판도시 1단계사업 인포룸. 1999.(위)**

9월에 완공하여 공사 진행 상황 조망과 입주기업 홍보관으로 이용하였다.

**인포룸 기공 告由祭. 1999. 4. 7.(아래)**

출판단지 기반시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현장관리 업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현장회의, 전시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李起雄 이사장이 베를린을 다녀오면서 구상한 첫 시설인 인포룸 착공을 알리는 고유제를 진행했다. 회원들은 도포를 입고 있으며, 앞선 이들은 李鍵馥 건설본부장, 朴忠一 인쇄문화협회장이다. 이 행사에 플로리안 베이겔 북련연대학 교수, 李在昌 국회의원, 宋達鏞 파주시장, 韓明熙 국의원장, 閔賢植 건축가, 承孝相 건축코디네이터 등과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파주출판도시 건축설계지침 마련을  
위한 국내외 건축가들과의  
현장 답사 및 협의. 1999. 4.

承孝相 · 閔賢植 건축코디네이터,  
金京熙 지식산업사 대표,  
李起雄 이사장, 건축가 플로리안  
베이겔과 필립 크리스토,  
金彦鎬 한길사 대표(왼쪽부터)가  
출판도시 현장을 답사했다.(위)  
출판도시 마스터플랜을 담당한  
플로리안 베이겔 북런던대 교수가  
李起雄 이사장을 예방, 출판단지  
건축계획에 대해 협의했다.(아래)



**인포룸 개관 기념행사. 1999. 9. 9.**  
출판도시의 건설현장을 지휘 감독하고, 전시기능과 각종 이벤트기능, 회의기능, 사무국기능 등을 수행할 파주출판도시 인포룸이 완공되어 성대한 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 일명 구구절(1999년 9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사라고도 불린 인포룸 개관 기념식은 출판단지에서 최초로 입주되는 인포룸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조합원은 물론 金榮秀 전 문화체육부 장관, 宋達鏞 파주시장 등 각계 인사들과 을유문화사 鄭鎮肅 회장 등 출판계 원로, 閔賢植 교수, 承孝相 소장 등의 건축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본격적인 현장업무 개시를 대내외에 알리는 뜻깊은 행사였다. 아래 기념사진은 林應植 사진작가가 촬영했다.





**시범지구 및 2차 개발지구  
건축설계지침 설명회. 인포룸.**

**1999. 9. 21.(위)**

입주사를 대상으로 건축가  
閔賢植 · 承孝相 건축코디네이터가  
조합원들에게 2차지구 개발방향에 대한  
사업추진을 설명했으며, 참석한  
54개사 조합원들도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등 진지한 의견을 나누었다.

**2차 개발지구 입주사 필지면적 및  
위치 확정도 추첨. 인포룸.**

**1999. 10. 6.(가운데)**

토지배정은 지구별 배정(출판지구,  
인쇄지구, 지원지구, 유통지구),  
필지 단위별 배정(설계 평형별 개별필지  
배정), 동일평형(일차적으로 상호협의,  
협의 불가할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  
조합원 1개사 1필지 배정을  
원칙으로 했다.

**파주출판단지 교통대책 세미나.  
인포룸. 1999. 11. 23.(아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입주사 증사자들의 출퇴근 및  
방문자들을 위한 교통대책 마련  
세미나로, 전문가들로부터  
편리성을 갖춘 다양한 대중교통  
수립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파주출판단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인포룸. 1999. 11. 25.(위)

갈대셋강 보전 워크숍 개최. 인포룸. 1999. 12. 28.(아래)

'출판단지 갈대셋강 보전 대책은 있는가' 라는 주제로 수로(갈대셋강) 보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李起雄 이사장을 비롯해, 金京熙·金正善·韓喆熙 이사, 건축코디네이터 閔賢植·承孝相·金榮俊, 崔政權(경원대 교수), 崔益洙(파주시 사회산업국장), 愼孟敦(한국토지공사 출판단지개발사업소장), 李錫和(현대산업개발 과장), 송영주(중앙지질개발소장), 그 외 여러 건축가 및 조합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 모두가 갈대셋강 보전·보호가 출판단지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 의견을 같이하고 보전을 위해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書築共業의 기틀을 세우다**  
**출판도시 1단계를 완성하다**

# 2000

## 건강한 출판문화와 건축문화, '위대한 계약서'

출판단지 건설공사가 본격화하면서 공사 관리는 물론, 사옥 건축계획 수립 등 건축 전문가들과의 업무협약이 필요했고, 이에 우리 조합은 건축 전문가와 건축 코디네이터 계약체결을 추진하고 현장 관리 및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우리는 단순히 출판산업을 집적화시킨 출판단지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일관된 정신과 테마로 아우르는 인간성 존중의 도시, 생태환경도시, 도시 전체가 박물관 같은 문화도시의 건설을 목표로 도시건설 및 건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건축설계지침'을 완성하고, 이를 모든 조합원과 건축가들이 철저하게 지킬 것을 약속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양보하면서 共同善을 추구하는 '鄉約'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 협약서의 아름다운 정신이야말로 한국 건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여 이 협약서를 '위대한 계약서'라고 이름지었다. 또한 2000년에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를 추진해 2차에 걸친 신중한 심사로 당선안을 확정하는 등 구체적 건립계획에 돌입했으며, 출판단지 활성화와 직결된 상업시설도 투자자들의 뜻을 모아 개발계획이 수립 추진되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건설추진사업은 계획과 달리 한계에 부딪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건축가와 출판인의 '위대한 계약' - 파주출판도시 건축설계 착수에 즈음한 시범지구 공동설계계약 조인식. 2000. 4. 26.  
출판도시 건설을 발의한 지 12년 만에 출판도시 건축설계를 시작하면서, 시범지구 입주예정업체 대표 전원과 건축코디네이터, 설계를 담당할 건축가 그룹은 인포룸에서 출판인과 건축가가 출판도시에 건강한 출판문화와 건축문화를 정립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위대한 계약서'에 합의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위대한 계약은 입주사와 건축가 모두의 '공동성 실천'의 의지를 담은 역사적인 행사였다.



출판도시 1단계 내 셋강 옆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2001.(위)

「풍력발전기가 도는 출판도시 만들기」 세미나, 2000. 3. 16.(아래)

출판단지 무공해 환경에너지 도입을 적극 추진, 이를 위해 풍력발전 에너지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여러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했고, 2000년 8월 인포룸 앞 녹지에, 독일에서 생산된 타워 높이 25미터에 날개 지름 7미터가 넘는 10킬로와트 용량의 풍력발전기 한 대를 시범 설치했다.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인포룸과 한옥에 공급하려 했으나, 풍력이 고르지 않아 에너지의 경제성이 매우 미미하여, 현재 이 풍력발전기는 천연에너지를 향한 이 도시의 상징물로 남았다.





정음 金東洙씨 작은댁 사랑채  
 移建 上梁式(2000. 3. 26. 가운데,  
 아래)과 移建이 완료된 모습(위).  
 출판단지엔 전통의 맥과 역사성을  
 부여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의 한옥인  
 정음 金東洙 씨 작은댁 사랑채가  
 순조로운 移建 과정을 거쳐, 축제  
 분위기 속에서 上梁式을 개최했다.  
 상량식에서 참석자들은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쉬는 출판문화도시로의 영원한  
 발전과 전통한옥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선조들의 정교한 건축기술이  
 출판단지 건축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기원했다. 한옥 상량식은 金德洙  
 시물놀이패의 흥겨운 길놀이를  
 시작으로 전통의식에 따라 진행되었고,  
 上樑文은 성균관대학교 宋河瓌 교수가  
 현장에서 직접 毛筆로 작성했다.





安重根 스승 순국 90주기를 추도하며 그분을 출판도시에 모시는 모임. 2000. 3. 26.  
 安重根 의사 순국 90주기를 추도하며, 안중근 선생을 출판단지 조성공사에 정신적  
 監理師로 모시는 행사를 인포룸에서 개최했다. 안중근 선생의 강인한 정신력을  
 본받아 출판단지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李起雄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출판도시의  
 완벽한 설계, 시공, 감리를 安重根 의사의 강인하고도 차원 높은 정신의 힘에 기대기  
 위한 자리"임을 강조했다. 咸世雄 신부가 이 행사를 집례했고, 閔賢植 교수가  
 '감리'란 무엇인가에 대해 짧게 강연했으며, 이 행사와 함께 李起雄 이사장이  
 옮겨엮은 「안중근 전쟁, 끝나지 않았다」 출판기념회도 열렸다.



**강릉 건축워크숍 중 船橋莊에서. 2000. 1. 15.(위)**

건축설계 완성의 해를 맞아 출판도시 건축에 관한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릉 현대호텔과 船橋莊에서 건축가와 건축주가 워크숍을 가졌다. 船橋莊이라는 전통건축의 현장을 둘러보며, 그리고 그 동안의 해외 건축여행의 경험을 통해, 출판도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건축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룰 수 있었다.

**정기이사회. 2000. 1. 25.(위)**

건축코디네이터 閔賢植 교수가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을 대상으로 인포룸의 건축모형을 보면서 출판단지 건축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출판도시 개발에 있어 閔賢植 교수와 承孝相 이로재 대표를 출판도시 건축코디네이터로 선정해 '출판도시 건축을 위한 설계지침'을 완성했고, 출판도시의 모든 건축물은 출판도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설계에 한하여 파주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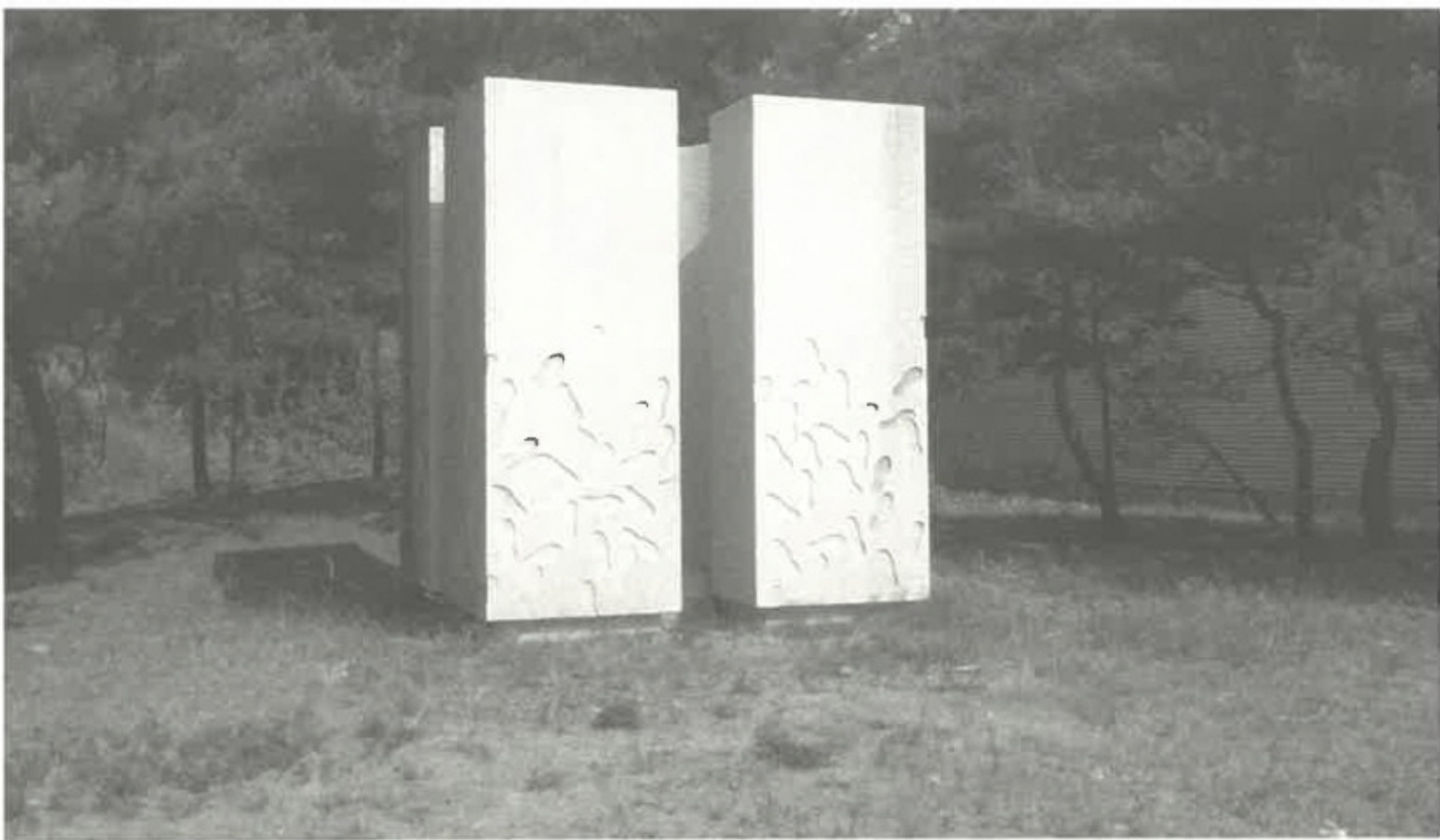


**시범지구 입주사 대상 사옥건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 추진 관련 사업설명회. 2000. 7. 3.(위)**

시범지구 입주사 대표들에게 공동성 실현을 위한 건축설계용역 문제를 비롯해 입주일정 및 기반시설에 관한 제반업무 등을 설명했다. 또한 집행부와 建築家團이 합의한 설계비 내역에는 건축·전기·기계에 관한 기본·실시 설계비와 건축공사 시공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네번째 '출판도시 건축기행'으로 간 덴마크의 한 도시에서. 2000. 7. 6.(아래)**

이 여행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의 건축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생활 속 면면에 묻어 있는 자연과 문화예술, 그리고 건축 등을 보고 배우으로써 출판도시 건설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였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金奉勳 교수와 서울대 金光鉉 교수의 현장강의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지혜의 빛' 점등식.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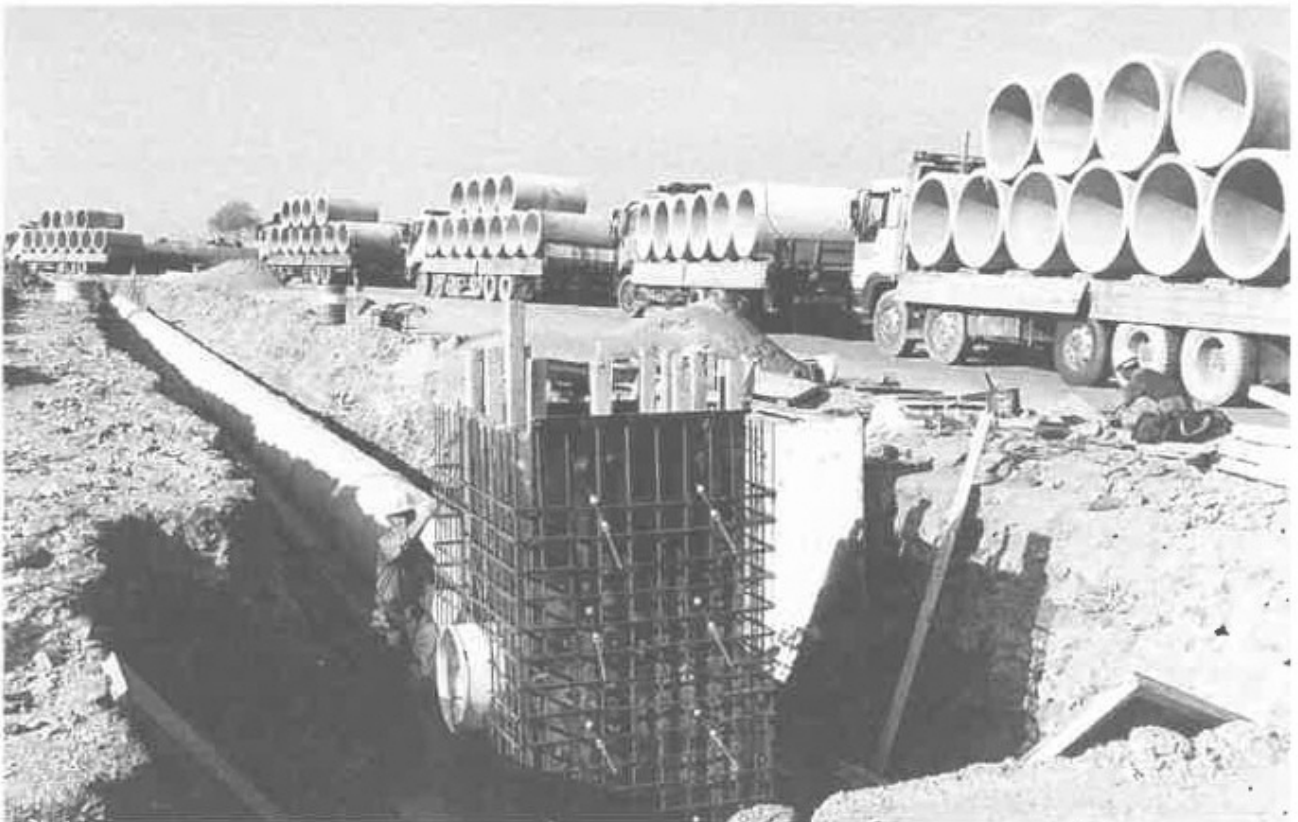
출판도시 건설현장에 제일 처음으로 완성된 사업추진의 사령탑 기능을 하는 인포룸에서 '출판환경 변화에 따른 출판도시의 도시적 성격 재조명'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을 비롯하여 아시아출판정보센터 현상설계 시상식 및 전시회 개막, 출판도시 상징 조형물인 '지혜의 빛' 점등식 행사를 했다. 金道鉉 전 문화체육부 차관, 金榮秀 전 문화체육부 장관, 全壽千 조각가, 辛鉉雄 전 문화체육부 차관, 承孝相 건축가, 李起雄 이사장이 점등하였다.

# 2001

## 건축의 해, 출판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향해

2001년은 지난 13년 동안 준비해 온 출판도시에 집을 짓는 '건축의 해'로, 이전까지 기반시설공사 등 평면적으로 조성되던 출판도시에 입주사 사옥 건축이라는 입체화의 서막이 오른 해였다. 입주사 사옥 건축을 위해 해당 관청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추진되는 기반시설공사는 2001년말 90퍼센트의 공정을 보였으며,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제반 인입시설도 차질없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업무에 충실을 기했다. 건축비를 확보해야 하는 입주사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자금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설계가 완료된 입주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공사와 준공인가 전 토지사용승낙,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 체결, 파주시와 건축허가취득 등을 적극 추진했다. 6월 15일 출판도시 건축 착공식을 성대하게 개최함으로써 출판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향한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렸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건축비 국고지원 85억 원이 수시배정 예산으로 확정되어 2002년도 25억 원, 2003년도 6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한국통신과 출판단지 구내통신 및 사이버 드림타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 걸맞은 다양한 최첨단 정보서비스를 통해 지식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게 되었다.





기반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출판도시. 2001. 9. 28(위), 2000. 8(아래).

설계용역계약의 진행과 더불어 기반조성공사도 빠르게 진척되어 갔다. 상하수도 매립공사(아래)는 물론 진입로 개설공사가 진행되었고, 도로와 교량이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일부 입주업체는 사옥 착공을 위해 터다지기 작업을 해 나갔다. 위의 사진 중앙에 보이는 다리가 安重根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 이름지은 '應七橋'이다.



**파주출판도시 시범지구 건축착공 및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식. 2001. 6. 1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부지에서 시범지구 입주사 사옥 건축 착공식과 아시아센터 기공식을 동시에 개최했다. 출판문화인들이 13년 동안 뜻을 모아 추진해 온 출판도시가 드디어 건축 착공에 들어감으로써 구체화의 서막을 올렸다. 이날 착공식은 총 부지 48만 평으로 계획된 출판도시 계획을 가시적으로 형상화하는 첫 시범지구사업으로서, 40여 명의 국내외 저명 건축가들과 공동성의 실현을 통해 건설되는 출판문화도시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착공식에는 조합원은 물론 출판문화계 인사와 저자, 예술인, 정관계 인사, 언론인, 건축가 등 각계 각층의 내외빈 약 5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출판도시의 성공적인 착공을 축하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신축공사**

**계약 서명식. 2001. 6. 22.(위)**

시공사인 장학건설과 계약 서명식을 갖고, 신축공사 관련하여 조합, 시공사, 설계자,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이 모여 현장공정회의도 개최했다.



**구내통신, 사이버 드림타운**

**협정체결식. 2001. 12. 7.(가운데)**

李起雄 이사장이 한국통신 고양전화국 사장원 국장과 구내통신설비, 사이버 드림타운 협정 및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파주출판도시 제2차 건축전시회 개최.**

**2001. 12. 15.(아래)**

제2차 건축전시회가 입주사 송년회를 겸하여 열렸다. 李在昌 국회의원, 파주시장, 문화관광부 출판시문과장, 고양전화국장 등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02년 1월 15일까지 진행된 이 전시회는 설계가 완료된 70여 개사 입주사 사옥 모형을 전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출판도시의 비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었다.



# 2002

## 입주의 해, 출판도시 시대의 문을 열다

'출판도시 입주의 해'로 정한 2002년은 보진재, 화성프린원, 태평양그랜드, 도봉금장, 희망 등 인쇄사 다섯 곳과 한길사, 동그라미교육, 서울지류유통 등이 차례로 입주를 시작했다. 2002년은 한경변에 버려졌던 황무지가 사람이 사는 곳으로 변한, 아니 새로운 출판문화를 창조하는 출판도시 시대의 문을 여는 의미있는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조합은 입주사들의 건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발주, 시공회사 선정, 건축공사 관리 등 입주사들의 사옥건축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건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사옥건축 진행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파주시와 건축코디네이터,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파주출판도시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건축이 완료되어 입주한 회사들을 위해 셔틀버스 시범운영과, 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적기 인입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또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교육연구동 건축이 완공되었고, KT통신센터가 입주하여 다양한 최첨단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한 해 동안 진행된 각종 사업들은 출판도시 완공 후 활성화를 위한 물밀사업에서부터 입주사옥건축 활성화를 통한 출판도시의 입체화를 마무리단계까지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보진재 입주. 2002. 8. 14.**

출판도시의 첫 입주사인 보진재(대표 金正善)가 창립 90주년 기념식 및 출판도시 신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공장가동이 본격적으로 가능하려면 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 오수처리장 등 모든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하는데, 한국토지공사와 파주시에서 책임지고 설치해야 할 일부 시설이 토지매수 지연으로 다소 늦어져 정상적인 공장가동 여부가 우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 집행부가 기민하게 대처해 임시관로를 통해 상수도, 도시가스를 끌어들이고 단지 내에 임시 오수처리시설을 갖춤으로써 대망의 파주출판도시 첫 입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건립 중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2002.(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단지 입주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입주의 우선 전제조건이기도 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를 현상설계 공모하여 최종심사한 결과, 시명중합건축사사무소 安熙相과 金炳濶 교수의 공동작품을 당선작에 선정(2000년 10월 10일), 이를 기본설계안으로 확정했고, 향후 사업추진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실시설계를 작성했다. 2001년 6월 15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식을 거쳐, 이듬해인 2002년 12월 24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교육연구동이 완공되기에 이른다.

**한길사 입주. 2002. 12. 20.(아래)**

보진재, 화성프린원에 이어, 金憲 설계의 한길사, 동그라미교육 등의 출판사들도 차례로 입주함으로써 실질적인 출판도시 시대를 열어 나가기 시작했다. 조합은 입주사들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과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孫鶴圭 경기도지사 방문.**

**2002. 10. 4.(위)**

孫鶴圭 경기도지사를 비롯하여 부지사와 경기도청 간부, 파주시장 등 50여 명이 출판단지 현장을 방문해 李起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함께 후 전망대에서 출판단지 현장 진행사항에 관해 브리핑을 받았다.

**제12차 정기총회.**

**2002. 1. 29.(가운데)**

출판단지 인포룸 회의실에서 출판도시 제1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운영과 관련하여 조합 내 특별회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관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임기가 만료된 감사 2명 중 金惠景(푸른숲 대표) 감사를 유임, 李政原(틀넉 대표) 조합원을 신임 감사로 선임했다.

**출판도시 건축설계 회의.**

**2002. 10. 23.(아래)**

파주출판도시 건축설계 영역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건축가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 설계 추진상황을 비롯해 건축심의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2003

## 문화예술행사, 책의 도시 탄생을 알리다

2003년은 출판도시 건축의 활성화, 입주 출판사들에 대한 지원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특히 완공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교육연구동의 운영 활성화와 전시정보지원동의 내실있는 건축진행 등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당국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국고지원 60억 원을 적기에 지원받아 건축비에 투입했으며, 전체 완공 후 기본 운영방향에 대한 기틀을 잡는 한 해였다. 10월에는 2003 파주 어린이책한마당을 개최, 출판도시의 대외적인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6만여 명이 관람해 각계의 성원 속에서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 행사를 통해 책의 도시 탄생을 알리고, 출판도시 건설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출판도시 읽기의 안목을 넓혀 주는 계기가 되었다. 12월에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출판도시의 도시적 목표 실현과 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복합문화연구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과 운영 등을 전담할 재단법인 출판도시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재단에서는 출판문화 및 지식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보급 사업을 비롯, 출판문화 및 지식정보산업의 국제교류협력사업, 국내외 도서전, 공연, 세미나, 전시회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게 된다.



**2003 파주 어린이책한마당, 2003. 10. 9.**

출판도시에서 처음 시작된 문화축제로, 열흘간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자연과 놀아요' 행사장인, 출판도시 내에 식재한 메밀밭에서 말과창조사 李敦煥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림학원 산하유치원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2003 파주 어린이책한마당.**

**2003. 10. 9-18.**

이 축제는 출판도시와 파주시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열흘간 500여 출판사의 참여 속에 이 도시의 모습을 최초로 일반에게 공개하는 행사였다. 6만여 명의 관람자들에게 건설 중인 파주출판도시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미래를 상상하고 도시읽기의 안목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길놀이, 마임, 축하공연, 도서전시, 자연과 놀아요, 책문화 한마당, 대장장이전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기공식.**

**2003. 1. 24.(위)**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물종합유통센터의 건축을 대내외에 알리는 기공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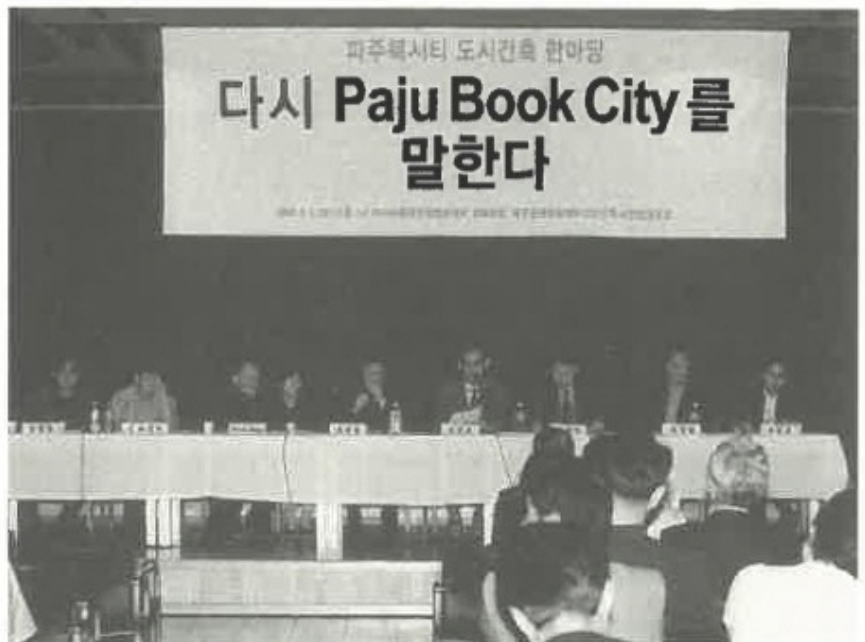
**재단법인 출판도시문화재단**

**정기이사회, 2003. 12. 11.(가운데)**

재단의 정관과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창립 임원명단 확정, 그리고 신임 이사장에 李起雄 출판단지 조합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다시 파주북시티를 말한다」 세미나 및 토론회, 2003. 6. 3.(아래)

출판도시 건설을 중간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 2004

## 건축전시장이 된 출판도시, 줄을 잇는 방문객

2004년은 건축과 입주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54개사(임대입주자 포함 100여 개사)가 입주를 완료했고, 20여 개 입주예정사의 사옥건축이 힘차게 진행되는 등 출판도시가 점차 제 모습을 갖춰 가는 해였다. 또한 출판도시 핵심지원시설 중 하나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 완공되어 출판도시 입주사 회의, 건축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와 파주 어린이책한마당, 출판도시 가족 송년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했으며, 세계생명문화포럼 등 외부행사도 적극 유치했다. 특히 센터 외부에 출판도시 건축전시장이 설치되어, 출판도시를 견학하려는 학생들과 건축가, 일반인 등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출판도시 현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시설로 자리했다. 최첨단 자동화물류기지인 출판물종합유통센터 북센이 완공되었고, 대형 쇼핑몰인 이채 쇼핑몰이 완공, 9개 영화관과 푸드코트, 편의점 등이 들어서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입주사 사옥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설계를 독려하여 80여 개사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으며, 문화, 상업, 유통시설들이 건축 중인 주거시설과 함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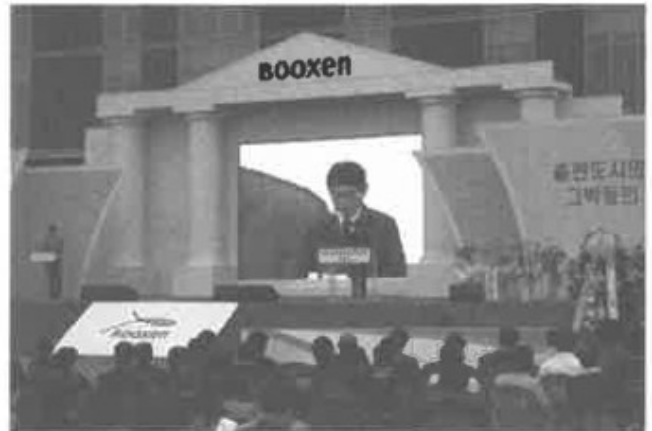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완공.**

**2004. 6. 23.**

출판도시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초석이 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 완공되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국내외 북페어를 비롯한 국제출판문화교류와 연구·저술·번역 활동을 지원하고, 전시·교육·회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출판도시의 핵심시설로 자리잡아 갔다.





**출판물종합유통센터 북센 완공, 2004. 6. 28.**

출판유통 업무의 표준화와 자동화를 위한 출판물종합유통센터 북센이 閱賢植의 설계로 완공되어 준공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 센터는 최첨단 자동화 출판물류시스템을 도입해 출판사와 서점 간의 합리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출판물을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하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장 및 독일출판계 인사 내방, 2004. 6. 7.(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장 및 독일출판계 인사,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장 등 40여 명이 출판도시를 방문해 출판도시 주요시설을 탐방하고, 李起雄 이사장 등과 오찬 후 환담을 나누었다.**

**주요 언론사 문화부장 초청 간담회, 2004. 6. 18.(가운데, 아래)**  
**중앙일간지 문화부장 10명과 입주사 대표 20여 명이 참석, 출판도시를 안내하고, 출판도시 조성현장 설명과 자료를 제공했다.**





출판도시 주거시설 헤르만하우스 기공식, 2004. 9. 13.(위)

이체 쇼핑몰 완공, 2004. 6. 24.(아래)

부지 5800여 평에 연면적 2만 2000여 평 규모의 파퓰러 이체 쇼핑몰이 완공되어, 준공식 및 기념음악회가 열렸다. 이상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주변 관광객 흡수, 나아가 출판도시 전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영화관을 비롯, 실내수영장, 난타전용극장, 패션몰 등이 입점한 대형 쇼핑센터이다.

입주사 특별전시회 관련 설명회 및  
건축 심포지엄. 2004. 6. 3.(위, 가운데)

柳道烈 상무이사 정년 퇴임.

2004. 9. 13.(아래)

조합 실행이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사장, 상무이사, 金彦鎬 · 金熒允 ·  
金惠景 · 裴孝善 · 宋永萬 · 李鎧馥 ·  
韓喆熙 이사의 참석하에 柳道烈  
前 상무이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14년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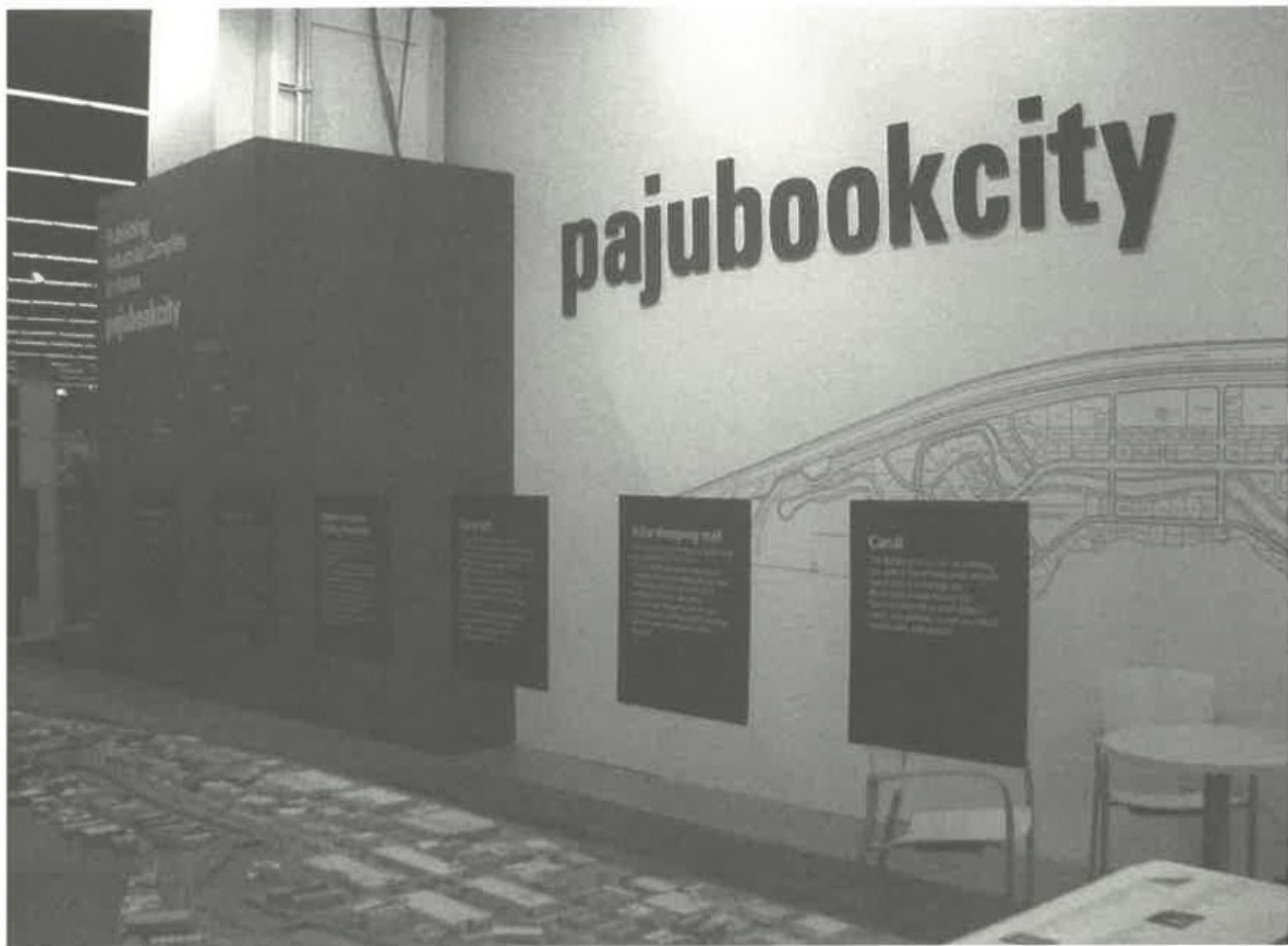


# 2005

## 세계가 주시하는 출판산업의 집적화 도시로 떠올라

2005년은 출판도시 1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는 시점으로, 목적사업 완료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히 입주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상주 인구의 증가와 함께 방문객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출판도시의 도시기능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공공기관, 은행 등 각종 편의지원시설 도입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판도시 건설사업에 매진해 온 사업협동조합과 분리, 입주기업체들이 주축이 되어 출판도시 입주기업체협의회(가칭)를 결성, 그러한 역할과 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한편, 출판도시가 문화, 교육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과 어우러진 다양한 행사를 기획, 고유사업으로 열어 가기 시작했다. 출판계 종사자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연극과 음악회, 국제포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행사 등은 국내외적으로 출판도시에 대한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10월에는 출판도시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특별 초대되어, 세계 출판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앞서 9월 베를린 건축전시회에도 초대되어 출판도시로서뿐 아니라 아름다운 건축물로 채워지는 건축도시로서 세계 건축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한국관 내 출판도시부스, 2005. 10. 18-23.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 초청으로 한국관에  
 출판도시 건축모형을 전시하고, 영어와 독일어로 제작된 안내 팸플릿을  
 배포하여, 세계 각국의 출판관계자 및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출판도시 도로와 갈대셋강 대청소, 2005. 3. 25.(위)**

23개 입주사 임직원 53명과 8개 건설회사 임직원 28명이 참여하여 출판도시 도로와 갈대셋강,自社 주변을 청소했다. 또한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출판도시 갈대셋강 청소를 실시했다. 그동안 출판도시 수로의 갈대를 제거하지 않아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갈대제거 및 수로 청소를 하기로 하고,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접수한 결과 1억 4400만 원이 나왔다. 이에 파주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갈대제거 및 수로를 청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파주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조합에서 직영으로 추진한 결과 견적금액의 10퍼센트인 1400만 원에 사업을 완료했다.

**웅진씽크빅 사옥기공식, 2005. 5. 20.(아래)**



**2005 파주어린이책잔치 개막식,  
2005. 9. 29.(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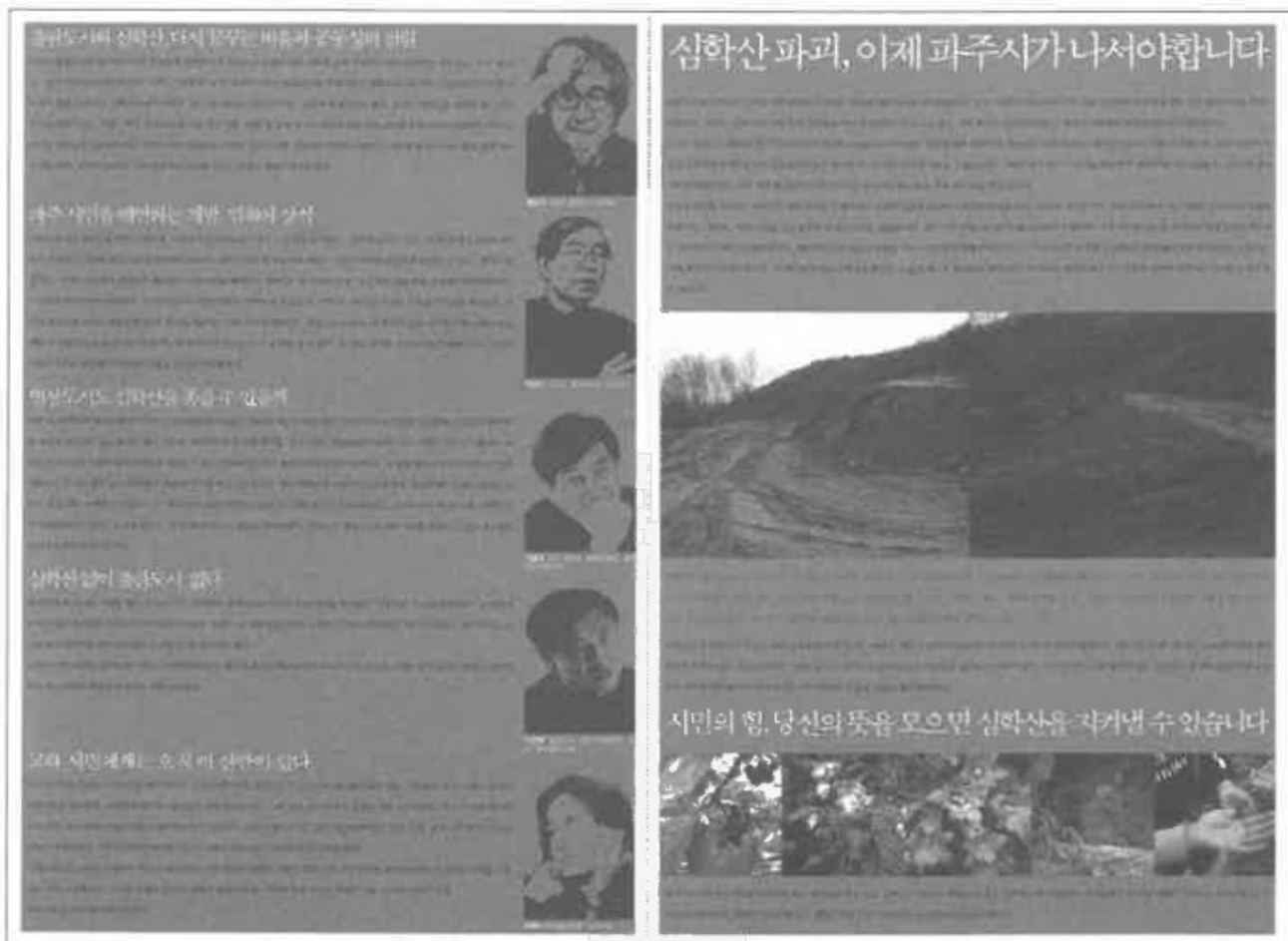
세번째 맞이한 어린이책잔치는 '어린이책-신나는 이미지 세계' 라는 주제로 어린이책 테마전시회, 이와사키 치히로의 복제원화전, 李友慶 특별 원화전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도서전시회와 그림책 상상놀이, 그림책 워크숍, 강연과 포럼, 그림책 같은 영화 시사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10월 9일까지 열린 이 행사에 5만 7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출판도시 2단계 건설 관련 영상업체  
설명회. 2005. 7. 13.(가운데, 아래)**

출판도시 2단계 영상산업 부지 3만 1047평의 분양과 관련하여 싸이더스픽처스 등 영화업체 30여 개사를 초청하여 출판도시 1단계 조성사례 및 2단계 건설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케이디미디어 등 입주업체를 건학했다.





심학산살리기 시민연대에서 발행한 심학산살리기 통신.(위)

**심학산 지키기 결의대회. 2005. 11. 14.(아래)**

심학산의 일부인 교하읍 산남리 산58-2번지 3000평의 부지를 공장으로 승인한 건에 대하여 철저한 경위조사와 빠른 복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파주시에 제출했으나, 파주시는 이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해당되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 공장설립승인에 따른 산지전용협의를 해 주었고, 앞으로는 자연경관의 유지 및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법령개정 건의 등 우량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회신을 해 오에 따라, 조합 자체적으로 심학산 훼손 긴급대책회의를 거쳐 심학산 지키기 결의대회를 가졌다.



**을유문화사 창사 60주년 기념식 및 도서전시회. 2005. 12. 1.(위)**

1945년 광복과 함께 설립되어 현재까지 광복출판 60년의 맥을 이어 온 을유문화사의 창사 60주년 기념행사 및 도서전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개막되어 18일까지 이어졌다. 이 자리는 우리 출판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동아시아 책의 교류 2005 개최. 2005. 10. 7.(아래)**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 책의 교류 2005와 「스기우라 고헤이 잡지디자인 반세기」전을 열었다. 일본의 스기우라 고헤이(杉浦康平), 중국의 뤼징런(呂敬人), 대만의 황용송(黃永松), 한국의鄭丙圭 등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북디자인과 출판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여 출판문화의 교류현황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 및 토론회와 전시회를 개최했다.

# 2006

## 출판도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2006년은 출판도시 1단계 사업의 완성을 앞둔 상황에서 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주도하는 조합과 완성된 출판도시의 관리를 위한 협의회 설립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던 해였다. 사업이나 업무 또한 조합과 입주기업체협의회로 이원화하여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왔다. 기존에 추진했던 주요사업은 사단법인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여 추진키로 하고 입주기업체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한편 출판도시 내 일련의 변화와 더불어 2006년은 새 사옥으로 입주한 입주사들의 임직원들과 출판도시를 찾는 방문객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공공기관, 은행 등 각종 편의시설 도입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도시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책잔치를 비롯, 국제출판포럼,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 파주북시티 책잔치 등 각종 행사 또한 적극 지원했다. 초·중·고·대학생들의 단체 견학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국내 방문객이 줄을 이었으며, 특히 출판도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필리핀, 대만, 터키, 중국, 일본 등 외국 출판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의 방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파주출판도시 1단계 조감 사진. 2006.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내 게스트하우스 기공식. 2006. 6. 29.(위)**

출판도시문화재단 李起雄 이사장, 金允起·朴元淳·承孝相·尹錫金·洪池雄 이사, 宋永萬·李鍵馥 감사, 조합 실행이사 7명, 설계자, 시공회사, 감리회사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2006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개막. 2006. 5. 4.(아래)**

개막식에는 문화관광부 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파주시장 등 정관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韓佛수교 120주년을 기념해 초청국가를 프랑스로 선정, 다채로운 프랑스 어린이책의 세계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된 '북시티 프롬나드'와 '영상'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전시 구성은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2006 폐회식 및 칵테일 파티. 2006. 10. 21.(위)**

국제출판포럼의 3일간 일정을 마친 포럼 참가자들이 출판도시 한옥에서 칵테일 파티를 열었다. 다과와 한국 전통 음료로 환담의 시간을 갖고 기념촬영을 했다.

**파주북시티 페스티벌 2006 개막식. 2006. 10. 17.(아래)**

국제출판포럼 및 특별전 「종이에서 책으로」 전시를 시작으로 파주북시티 페스티벌 2006이 개막되었다. 개막식에는 金明坤 문화관광부 장관, 朴孟浩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알렉산더 피까넨코 러시아 모스크바출판대학 총장 등 국내외 출판문화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출판포럼 및 2회째를 맞이하는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과, 새롭게 가을행사로 어른을 위한 책잔치를 함께 기획한 것이다. 출판도시의 대표적인 가을행사로 자리매김하고 행사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파주북시티 페스티벌 2006'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행사를 개최했다.



**건설교통위원장 출판도시 방문. 2006. 7. 10.(위)**

국회 李浩雄 건설교통위원장이 출판도시를 방문하여, 李起雄 이사장과 출판도시 현안업무를 협의한 후 입주사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출판도시 2단계 건설을 위한 세미나. 2006. 3. 25.(아래)**

'출판도시 1단계의 경험, 그리고 2단계 건설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1단계 입주사, 건축가, 2단계 참여회사, 참여예정 건축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입주기업체협의회 창립총회, 2006. 11. 14.(위)**

2004년 6월, 출판도시 1단계 입주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기업협의회 회장에 李起雄 조합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입주사들이 중심이 되어 도시관리 및 책방거리 조성, 북카페, 갤러리 등 문화공간 설치를 위해 노력했다. 이후 2006년 1월 (가칭)출판도시공동체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2006년 11월 14일 사단법인 출판도시입주기업체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안) 승인, 임원선임,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서(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장에 李鍵馥 동넵 대표가 선임되었다.

**2006년도 조합 임시총회 개최, 2006. 11. 14.(아래)**

2단계 사업을 위한 조합 정관 개정, 1단계 회계업무 종료와 입주기업체협의회 창립 결의, 출자금 처리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기금 각출안 등을 논의하고 결의했다.

# 2007

## 1단계 협동화사업 완료와 2단계 협동화사업 진행 始動

3월, 盧武鉉 대통령과 令夫人 權良淑 여사가 출판도시를 방문하여 李起雄 이사장이 출판도시 현안, 2단계 협동화사업 및 추가사업 구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5월에는 교육연수지원시설인 게스트하우스 '호텔 紙之鄉' 과 '갤러리 紙之鄉' 이 개관되어 비로소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이 완성되었다. 이와 함께 근대 한국의 출판인쇄 자료를 전시하고 시연하는 '출판도시 활판공방' 을 비롯하여, 웅진씽크빅, 두성산업 등 10여 개 출판·인쇄사가 입주함으로써 출판도시 1단계 협동화사업의 완성을 선언하였으며, 이 사업은 국내외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2단계 협동화사업에서도 1단계 협동화사업에서 축적한 경험과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참여 조합원의 적정 소요 건축 면적, 이전계획, 재정규모, 회사의 비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였다. 그리고 6월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방안을 연구하고 계획한 내용을 담아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이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하였다. 이 계획서에는 2단계 상업·문화 시설을 연계한 두 개의 도서관, '아시아지식문화아카이브' 와 '영혼의 도서관' 건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파주출판도시 2단계 부지의 조감 사진. 2007. 5. 26.



**제17차 정기총회. 2007. 2. 22.(위)**  
 재직 조합원 대표 26명 중 140명, 위임 45명, 총 185명 등, 1단계 조합원과 2단계 참여사들이 함께 참석했다. 체납지체상금 납부를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 출판도시문화재단 李起雄 이사장을 4년 임기의 이사장에 만장일치로 추대 선임했다.

**출판도시 2단계 출판업체 1, 2차 면담. 2007. 2. 8-9.(가운데, 아래)**  
 1차 18개사와 2차 29개사를 상대로 자격심의 및 건축계획, 규모, 입주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면담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라운지 퍼블리셔스 클럽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이벤트홀에서 실시했다. 李起雄 위원장, 朴光成 부위원장, 李煥求 상무이사, 金榮俊 건축코디네이터 등이 참석했다.

盧武鉉 대통령과 영부인 權良淑 여사  
출판도시 방문. 2007. 3. 10.

盧武鉉 대통령과 令夫人이 출판도시 및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방문,  
李起雄 이사장이 출판도시 추진현황,  
2단계 협동화사업 및 신개념  
국립도서관 건립 건의, 추가사업구상  
등에 대해 설명하고, 레스토랑  
노을에서 朴孟浩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尹錫金 웅진씽크빅 회장,  
鄭奇濬 건축가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金文洙 경기도지사 출판도시 방문. 2007. 5. 28.(위)**

李起雄 이사장이 출판도시를 방문한 金文洙 경기도지사와 대중교통 노선 신설과 진출로 확포장 및 驛鶴山 훼손, 출판도시 진입로 간판 등 현안 업무를 협의했다.

**문화관광부 차관과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서 제출 간담회. 2007. 7. 20.(아래)**

문화관광부 차관실에서 李起雄 이사장, 김태우·朴泳律·李恩·張會云·車勝宰 이사, 李煥求 상무이사, 金根祥 부장, 金榮俊 건축코디네이터, 문화관광부 차관, 宋秀根 문화미디어국장, 이정우 출판산업팀장이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서 제출 간담회를 개최하여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서 설명 및 문화관광부 지원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조합 임원 연찬 워크숍, 2007. 5. 25.(위)**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서 작성 상황 설명 및 참여사 면적 조정 확정 방안 등과 2007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파주출판도시-성공적 모델 구축을 위한 세미나, 2007. 10. 2.(아래)**

조합원, 입주사, 건축가, 도시계획가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李起雄 이사장이 '출판도시 건설의 의미와 위상'이라는 주제로, 承孝相 1단계 건축코디네이터는 '1단계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싸이더스FNH 車勝宰 대표는 '2단계 협동화사업의 이슈와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문화관광부 金鍾民 장관 출판도시 방문. 2007. 9. 1.(위)**

북센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시찰하고, 출판계 및 출판도시 현안 및 2단계 협동화사업과 관련하여 환담했다.

**출판도시 활판공방 개관식. 2007. 11. 15.(아래)**

출판도시 활판공방은 옛 활판인쇄 시스템을 되살림으로써 이 분야 기능인들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또 그 기능을 길이 전승케 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공방은 大堂 崔南善의 『소년』 지 창간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개관했는데, 이를 위해 화가 林玉相은 설치조형물 〈백 년의 명축〉을 제작해 주었고, 젊은 작곡가 고우는 「바다, 파도, 파열」이라는 노래를 작곡해 주었다. 출판·인쇄계 원로 및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문학에서 피어난 영화」전 오픈.

2007. 11. 1.(위)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2007이 개막하여 11월 2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갤러리 紙之郷에서 「문학에서 피어난 영화」전이 열렸다. 조합원 및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했다.

2단계 참여 출판사와 영화사의 MOU 체결. 2007. 11. 1.(아래)

'출판의 영상화, 영상의 출판화'를 주제로 2단계 참여 출판사와 영화사 간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朴光成 생각의 나무 대표, 李恩 명필름 대표.



**書築共業의 꽃을 피우다**  
**'책과 영화의 도시'가 모습을 드러내다**

# 2008

## 출판도시의 국제화 및 2단계 협동화사업 추진 선포

2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게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5월에는 金榮俊 건축코디네이터와 출판도시 2단계 사업지구 설계지침 작성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국제출판협회(IPA) 서울총회에 참석한 국내외 관계자 500여 명을 출판도시로 초대하여 1단계 성과 및 2단계 협동화사업에 대해 널리 알렸다. 주한 미국 대사, 일본 대사 등 8개국 20여 명의 외교사절단이 출판도시를 방문하여 출판도시를 국제도시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도 했다. 7월, 문화체육관광부 柳仁村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1단계 실적과 2단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2단계 협동화사업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당부하였다. 9월에는 출판도시를 주제로 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초대전시회가 개최되었다. 2008년은 대외적으로 출판도시를 두루 알리면서도 2단계 핵심 문화시설인 '아시아지식문화아카이브'와 '영혼의 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담론을 거친 한 해였다.



**제28차 국제출판협회(IPA)  
서울총회 참가자들의 출판도시 방문.  
2008. 5. 14.**

'출판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출판협회 총회가 서울에서 열려, 전 세계 많은 출판인들이 내한했다. 특히 총회 기간 중 14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해, 총회 참가자들이 파주출판도시와 디엠지(DMZ), 헤이리 예술마을 등을 둘러봤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 전시되어 있는 출판도시 모형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위)과 출판도시 활판공방을 둘러보는 모습(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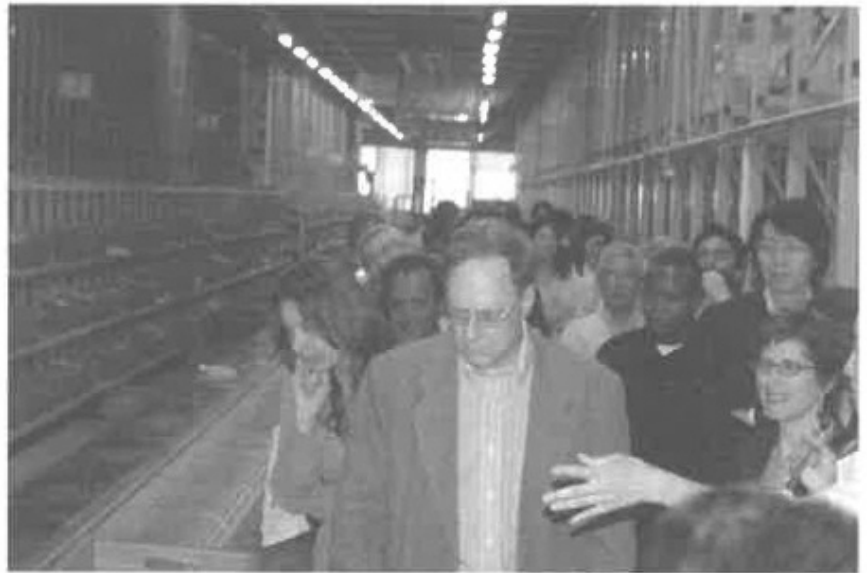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한국관 테마로 소개된 출판도시. 2008. 9. 14.(위)**

출판도시 건축 코디네이터 承孝相이 한국관 커미셔너로 책임을 맡은 한국관은 '크리티컬 토픽-컬처스케이프 파주출판도시(Critical Topic: Paju Bookcity as Culturescape)' 라는 주제 아래 출판도시를 소개했다. 출판도시는 '자연과 도시의 조화, 민간과 공공의 이익을 함께한 개발도시' 라는 점에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배형민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가 출판도시에 대한 기록과 증언을 정리했고 崔文洙 연세대 건축학과 교수가 영상물 등 전시형태를 구성했다. 李起雄 이사장, 洪池雄 열린책들 대표, 마스터플랜을 담당했던 플로리안 베이겔 북련연대 교수와 건축가 필립 크리스토, 도시환경 디자인을 맡았던 차起太 KDA그룹 대표, 건축주와 건축가 사이에서 의견 조율을 맡았던 金榮俊 김영준도시건축 대표 등이 협력 전시자 형식으로 참여했다.

**국제출판협회 서울총회에 소개된 출판도시. 코엑스, 2008. 5. 13.(아래)**

5월 12일에서 15일까지 열린 제28차 국제출판협회 서울총회에서 李起雄 이사장이 '출판도시 이야기' 라는 주제로 세계 출판인들에게 출판도시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세계 8개국 20여 명 외교사절의 출판도시 방문. 2008. 5. 31.**

세계 각국의 외교사절들을 상대로 출판도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책을 매개로 각국의 홍보관을 출판도시에 설치함으로써 출판도시를 국제도시화하자고 제의해 관심을 모았다. 李起雄 이사장의 안내로 출판사들이 모여 있는 廣印社길을 걸으며 활판공방으로 향하는 일행(위)과, 출판물종합유통센터 복선을 둘러보는 버쉬바우 주한 미국 대사와 각국 외교사절들(아래).





**柳仁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판도시 내방. 2008. 7. 17.(위)**

1단계 조성현황 및 2단계 협동화사업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현장을 확인했다. 權慶相 기획조정실장, 金讚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신중석 출판인쇄산업과장, 朴明順 국어민족문화과장, 張賢翼 전문관 등이 동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실 방문. 2008. 7. 3.(아래)**

李煥求 상무이사, 李起雄 이사장, 李恩 부이사장(왼쪽부터)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실을 방문하여 문화체육관광부 金讚 실장, 김기홍 미디어정책관, 신중석 출판인쇄산업과장, 이철운 사무관, 張賢翼 전문관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도시 1단계 실적 및 2단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2단계 협동화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제3회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개막식, 2008. 11. 19.(위)**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출판도시 입주사, 출판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제3회 출판도시 국제출판포럼 행사가 개막했다. '아시아 출판의 미래-경쟁 속의 협력방안' 이란 주제로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조합이 후원한 이 행사는 10개국 30여 명의 관계 전문가가 참가하여 21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제4회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 2008. 11. 27.(아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및 갤러리에서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출판도시 입주사, 출판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심포지엄은 '아시아적 상상력과 종이' 라는 주제 아래, 한·중·일·대만의 출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재료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종이의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 2009

## 2단계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하다

4월, 국무총리실의 규제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문화체육관광부의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평가 규정고시가 마무리되었다. 또한, 2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앞서 '문화주의 선언' 을 하는 기공식이 범국가적 행사가 되도록 이와 관련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기획예산처에서 출판도시 중기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었다. 5월 환경부 李萬儀 장관을 초빙하여 '출판도시 환경보전 세미나' 를 개최한 자리에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그린위원회 구성 등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동월에 LH공사(前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2단계 기반시설 공사 입찰 결과, 대림종합건설(주)에 254억 원으로 낙찰되어 2012년 5월까지 3년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6월에는 金文洙 경기도지사가 출판도시를 방문하여 출판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LH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산업용지 공급 공고(안)에 대한 업무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12월에 상업업무시설용지 분양 입찰 참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동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였다. 동월에는 LH공사가 2단계 상업업무시설용지 분양공고를 불시에 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관리권자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상업업무시설용지의 최종 낙찰자로 롯데쇼핑이 결정되었다. 이후 출판도시 정체성 및 개발 방향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졌다.





상공에서 바라본 출판도시. 2008. 5.



**한국토지공사 사장과 2단계 기반시설 추진 업무 협의, 2009. 1. 20.(위)**

李起雄 이사장, 李恩 부이사장, 李煥求 상무이사, 金根祥 실장과 朴贊郁 감독이 한국토지공사 이종상 사장, 尹汝公 산업단지처장, 洪春基 용지팀장과 한국토지공사 사장실에서 미팅을 하고 2단계 기반시설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출판도시를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

**2단계 건축설계지침 1차 세미나, 2009. 6. 26.(아래)**

金榮俊 건축코디네이터, 李鍾昊 건축가, 중앙대 이정형 교수, 이민우 조경전문가, 임재동 건축가, 1단계 김형윤편집회사 金煥允 대표 및 조합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金榮俊 건축코디네이터가 건축설계지침을 브리핑하고, 1단계 건축주인 김형윤편집회사 金煥允 대표가 1단계 입주의 경험과 보완점을 발표했다.



**2009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개막식, 2009. 5. 1.(위)**

'우리 가족, 우리 집, 우리 도시' 라는 주제로 31일까지 열린 2009 어린이책잔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송大棋** 차관, **柳和善** 파주시장, **黃麗夏** 국회의원, 대한출판문화협회 **白錫基** 회장, **鄭東采**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李泰馥** 전 보건복지부 장관, **金相坤** 경기도 교육감, **辛鉉雄**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계·학계·산업계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출판도시 환경보전 세미나, 2009. 5. 18.(아래)**

관련 전문가, 입주사 대표, 2단계 조합원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朴泳律** 이사(빅영률출판사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金榮俊** 건축코디네이터, 평화당인쇄 **李祥雨** 대표, 한강-임진강 습지사업단 **정지웅** 팀장이 주제발표를 한 후, 경원대 **崔政權** 조경학과 교수, 한국자연환경연구소 **조양근** 실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우리 정부의 환경정책과 출판도시에 관한 환경부 **李萬儀** 장관의 발언이 있었다.



**韓明淑 前 국무총리 및  
李光宰 국회의원 출판도시 방문.  
2009. 12. 2.(위)**

李起雄 이사장과 함께 출판도시를 둘러보고, 故 盧武鉉 전 대통령 묘역 조성과 관련된 기부 캠페인에 대한 내용을 업무 협의했다.

**安重根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추모행사. 2009. 10. 26.(아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로비 安重根 동상 앞에서 李起雄 이사장을 비롯하여 李煥求 상무이사, 출판도시문화재단 崔善鎬 상임이사, 李鍵馥 이사, 金英準 감사 및 임직원 일동이 모여 추모행사를 함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하반기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 대회 및 대변인 워크숍. 2009. 10. 30.(위)**

문화체육관광부 및 각 부처 정책홍보 관계자 및 대변인 등 76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에게 출판도시를 안내하고 2단계 협동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제4회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2009. 11. 19.(가운데)**

'책의 진화와 디지털 출판의 미래'란 주제로 진행된 국제출판포럼에서는 출판도시 입주사, 출판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디지털 시대에서의 철학과 디지털 출판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제5회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 2009. 11. 27.(아래)**  
출판인, 북디자이너,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2010

## 2단계 분양 계약을 완료하다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2단계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가 5월 말 시행되었다. 그 후 산업시설용지 면적 조정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필지 배정을 확정하기 위해 8월에 분양 공고 참여사를 대상으로 2단계 산업시설용지 필지 배정을 위한 추첨식을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2단계 협동화사업에 최종적으로 참여할 회사의 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관련 서류를 LH공사에 제출하였으며, 출판, 인쇄, 영상, 유통, 소프트웨어 업종 87개사가 최종적으로 LH공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한국출판역사박물관' (가칭) 건립을 위해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2단계 협동화사업의 면면을 채워 나가는 부단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2010년은 2단계 협동화사업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LH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끊임없이 논의하고 숙고한 한 해였다.



2단계 기반시설공사 현장. 2010. 7.



**출판도시의 정체성과 개발방향 토론회.**

**2010. 2. 17.(위)**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李起雄 이사장이 '출판도시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해, 金榮俊 건축코디네이터가 '출판도시의 개발방향과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를 하고, 조합, 입주기업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LH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롯데쇼핑, 대학 건축과 교수 등이 '출판도시의 정체성과 개발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李在五 위원장 출판도시 방문.**

**2010. 1. 8.(가운데)**

출판도시 2단계 산업지원시설인 상업시설용지에 롯데쇼핑이 낙찰됨에 따른 현장 점검 및 현황 파악을 위해 출판도시를 방문했다. 간담회를 통해 롯데쇼핑의 입주계약 체결시 조합과 협의하도록 주문했고, 출판도시의 산업용지 분양 및 상업업무시설에 대한 사업진행 과정을 실무부서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했다.



**산업지원시설 관련 건축 설계심의**

**긴급 자문회의. 2010. 4. 21.(아래)**

건축설계지침을 먼저 수립한 뒤 건축 설계심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롯데쇼핑의 건축 일정을 고려할 때, 전면적으로 건축설계지침을 다시 수립하는 것은 무리였다. 이에 건축심의위원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핵심적인 몇 가지 설계지침을 정리한 후 지침에 따라 심의하도록 결정했다.



**제20차 정기총회. 2010. 2. 26.(위)**

1단계 및 2단계 조합원 대표 등 92명이 참석하여 2009년도 사업, 감사 보고를 진행하고, 2009년도 결산, 2009년도 잉여금(결손) 처분(안), 정관 및 규약 개정(안), 2010년도 조합회비 책정, 2010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 2010년도 수지예산서(안) 승인, 추가 경정예산 편성권 이사회 위임, 기채 한도액 결정,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 결의했다.

**경기도 중소기업 활성화 과제 간담회. 2010. 3. 5.(아래)**

金文洙 경기도지사의 초청으로 열린 '경기도 중소기업 활성화 과제 간담회' 에서 李起雄 이사장이 참석하여 출판도시 2단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와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安重根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행사 '응칠교를 아시나요',  
2010. 3. 26.

柳和善 파주시장, 정진홍 중앙일보  
논설위원, 파주시 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리모델링한 應七橋를  
踏橋함으로써, 安重根 의사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應七'은 安重根 의사의  
兒名이다.



**2단계 조합원 전통건축 답사.**

**2010. 6. 2-3.(위)**

조합임원과 조합원, 건축가, 자문위원 등 총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산업시설용지분양 공고 시행에 따른 2단계 출판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답사의 일환으로 전북 정읍현감 한옥, 전주 한옥마을, 충남 부여 한국전통문화학교, 백제문화단지 등 주요 전통 건축물을 1박 2일 일정으로 답사했다.



**2단계 산업시설용지분양 관련 설명회.**

**2010. 6. 15.(가운데)**

2단계 조합원 대표 및 대리인, 조합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파주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2단계 신규 가입사 및 조합비 미납사의**

**면적 조정 및 사업 계획 검토를 위한**

**면담. 2010. 6. 21.(아래)**

李起雄 이사장, 李恩 부이사장, 朴光成 이사, 李煥求 상무이사(李英文 팀장, 全基爽 팀장 배석)가 총 15개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파주출판도시 산업지원시설 롯데쇼핑 신축공사 착공식, 2010. 7. 29.**

2011년 6월말 오픈을 목표로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의 착공식이 열렸다. 부지면적 약 4만 평방미터, 연면적 약 13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파주 아울렛은 12월 낙찰받은 출판도시 2단계 상업용지 내에 위치해 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철우 롯데백화점 대표이사를 비롯해 롯데쇼핑 관계자 및 파주시 정재계 인사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출판계와의 대화. 2010. 9. 2.(위)**  
 鄭柄國 위원장 외 위원이 출판도시를 방문하여 李起雄 이사장, 입주기업협의회 金彦鎬 회장 등 출판계 인사 20여 명과 만나 출판도시 2단계 문화시설 부지 내에 한국출판역사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단계 산업시설용지 필지 배정 추첨식. 2010. 8. 17.(가운데)**  
 2단계 산업시설용지 면적 조정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필지 배정을 확정하기 위해 출판, 영상, 인쇄, 소프트 업종 순으로 공개 추첨식을 가졌다.



**2단계 교량 설계변경 관련 현장 답사. 2010. 7. 3.(아래)**  
 조합 임직원 및 건축코디네이터가 참석하여 교량 설계 일정을 협의하고, 펌프장 설계, 한옥 이건/인포룸 II 설계, 건축설계지침 등과 함께 전시회 개최 계획을 확인했다. 또한 1단계 협동화사업 지구 내 교량 6개소와 2단계 사업지구 내 교량 8개소 설치 현장을 답사했다.





**2단계 입주계약신청서 제출.**

**2010. 8. 31.(위,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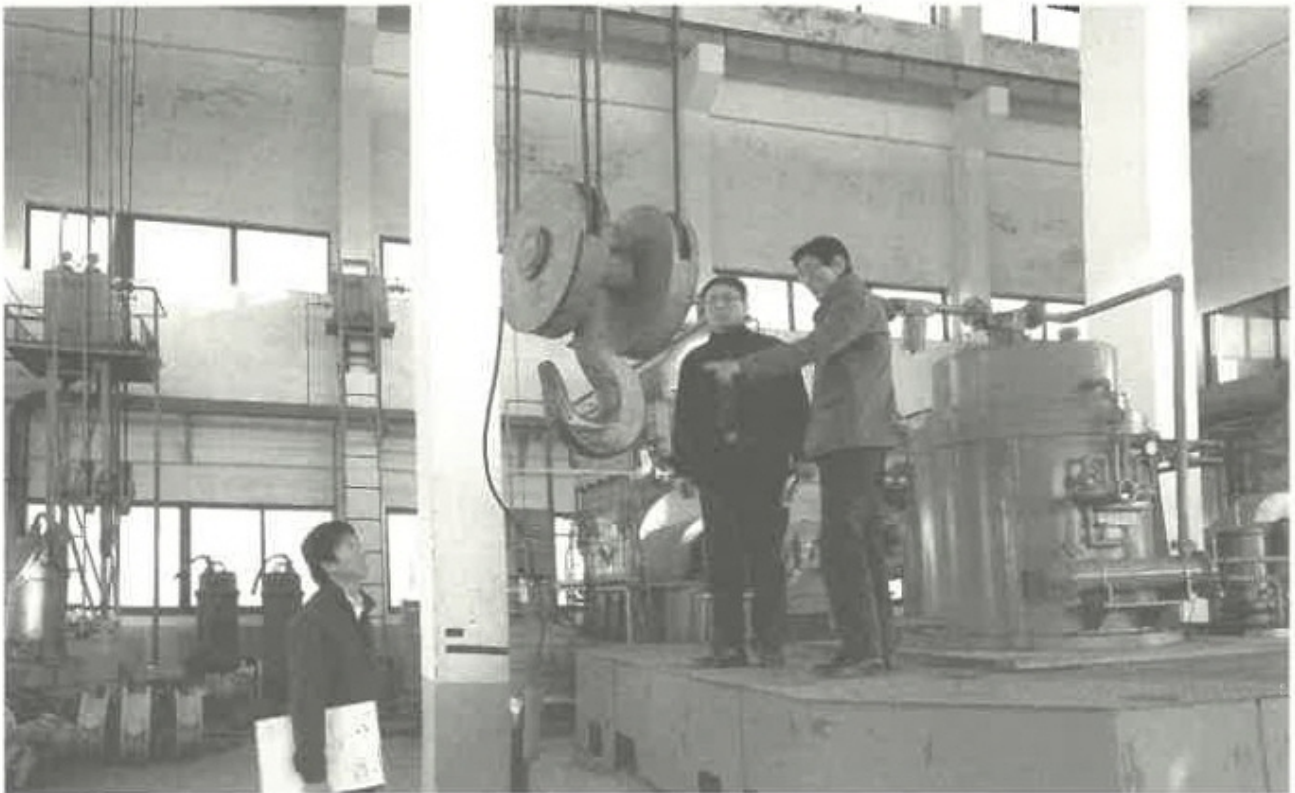
2단계 협동화사업에 최종적으로 참여할 95개사의 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개별 입주신청 관련 서류를 LH공사에 원본과 사본 각 1부씩 제출했다.

**2단계 입주 및 분양계약 설명회.**

**2010. 11. 4.(아래)**

2단계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 일정이 임박함에 따라, 2단계 입주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작성을 안내하고 계약서를 접수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李起雄 이사장, 李恩 부이사장, 2단계 조합원 대표 및 대리인, 조합 임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펌프장 기계설비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 답사. 2010. 12. 6.

李起雄 이사장, 李英文 실장, 林玉相 조각가가 외 1명이 철거될 펌프장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 2011

## 두번째 공동성의 실천, '좋은 계약'을 체결하다

2단계 협동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4월에는 모든 조합원과 건축가가 건축설계지침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2단계 '좋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1단계 '위대한 계약'을 계승하여, 개인의 이득보다는 공동성 실현을 보다 굳건히 약속하고 구성원 각각의 선한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그 일환으로 블록 건축가 간, 건축가와 건축주 사이의 교류 및 의사소통을 원활히 이어 가기 위하여 블록 건축가 간담회를 여러 차례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10월에는 令夫人 金潤玉 여사와 문화체육관광부 崔光植 장관이, 11월에는 金榮煥 지식경제위원장이 출판도시를 방문하여 출판도시 2단계 조성 현황 등 출판도시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렇듯 2011년은 내실있는 출판도시 2단계 조성을 위해 구성원의 뜻을 한데 모아서 앞으로 펼쳐 갈 2단계 협동화사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해였다.

# 선한 계약

출판·영화인과 건축가의 만남  
출판도시 2단계 공동 설계 계약 조인식

2011년 4월 28일(목) 오전 11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축가와 조합원 간의 공동성 실현과  
선한 의지를 다짐하는 '좋은 계약' 체결.  
2011. 4. 28.

출판도시 2단계 건축 전시회를 열어  
8개 교량 설계안, 인포룸 II 설계안,  
출판도시 2단계 참여 건축가 15인의  
프로필 및 주요 작품을 모형과 패널 등으로  
전시했다. 건축 전시회 오프닝 행사 후  
'좋은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모든 조합원과 건축가가 건축설계지침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2단계 '좋은 계약'은  
지난 1단계 '위대한 계약'을 계승하여,  
개인의 이득보다는 공동성 실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래 사진은 '좋은 계약서'를  
들어 보이는 **李起雄** 이사장(왼쪽)과  
**金榮俊** 2단계 건축코디네이터(오른쪽).





**2단계 건축 워크숍. 2011. 1. 21.(위)**

2단계 협동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11년을 맞이하여, 2단계 건축 워크숍을 충남 논산의 明齋古宅에서 가졌다. 인포룸Ⅱ 건축, 교량 착공 등 공공 건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충남 논산 및 공주 지역의 전통 건축물 및 유적지를 답사했다.

**제21차 정기총회. 2011. 2. 23.(아래)**

사업 및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주요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서울국제도서전 출판도시 홍보관 운영, 2011. 6. 15.(위)**

출판도시 1단계 성과와 2단계 협동화사업 추진의 내용과 방향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하여 홍보관을 운영했다.

**2단계 블록 건축가 워크숍, 2011. 6. 13.(아래)**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블록 건축가 면담을 진행한 결과, 건축가 간에 자유로이 토론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2단계 건설사업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필요함에 따라 2단계 블록 건축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金榮俊 건축코디네이터가 건축설계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 건축 답사, 2011. 9. 1.(위)**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 대표들이  
 2단계 블록 건축가가 참여하는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 행사에  
 참여하고 인근 학구당, 소재원 등  
 전통건축물을 답사했다. 趙成龍 블록  
 건축가가 작품설명을 하고 있다.

**건축가 후미히코 마키 교수의 강연,  
 2011. 10. 31.(가운데, 아래)**  
 세계적인 건축가 후미히코  
 마키(橫文彦) 교수가 '건축이 추구해야  
 할 가치' 라는 주제 아래 출판도시  
 2단계 입주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또한 출판도시  
 1단계의 입주사를 둘러보고,  
 2단계 협동화사업과 향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화체육관광부 鄭兩國 장관의 출판도시 방문. 2011. 8. 21.(위)

기존 펌프장을 출판도시역사자료관 및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현장 시찰과 업무 협의를 하였다.

기존 펌프장을 리모델링하여 출판도시역사자료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현장 시찰, 2011. 7. 8.(아래)

李起雄 이사장, 李恩 부이사장, 李煥求 상무이사, 李英文 실장, 全基奭 팀장, 閔賢植·承孝相 건축가, 이로재 이동수 대표, 金榮俊 건축코디네이터 등 10여 명이 현장을 시찰했다.





**李明博 대통령 영부인 金潤玉 여사와 문화체육관광부 崔光植 장관의 출판도시 방문. 2011. 10. 6.(위)**  
 파주북소리 2011 행사에 맞춰 출판도시를 방문하여 행사를 참관하고 출판도시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시아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노벨문학상 110주년 특별전」에서.

**인포룸II 설계 3차 브리핑. 2011. 10. 17.(가운데)**  
 李起雄 이사장, 李恩 부이사장, 李煥求 상무이사, 李英文 실장, 全基奭 팀장, 高濬旭 차장, 신용일 과장, 기오현 閔賢植 건축가, 이은경 실장이 인포룸II 설계 3차 브리핑을 진행했다.



**鄭柄國 국회의원의 출판도시 방문. 2011. 10. 12.(아래)**  
 한국출판역사박물관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2단계 교량명 심의회의. 2011. 11. 30.(위)**

7교, 8교, 9교, 10교, 12교, 13교의 명칭은 해당 난간 설계자가 추천한 春史橋, 風遊橋, 立線橋, 蘆洲橋, 以明橋, 曲直橋로 정했으며, 11교는 인쇄분야 유명인사를 추천받아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고, 14교의 명칭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文發橋로 정하기로 안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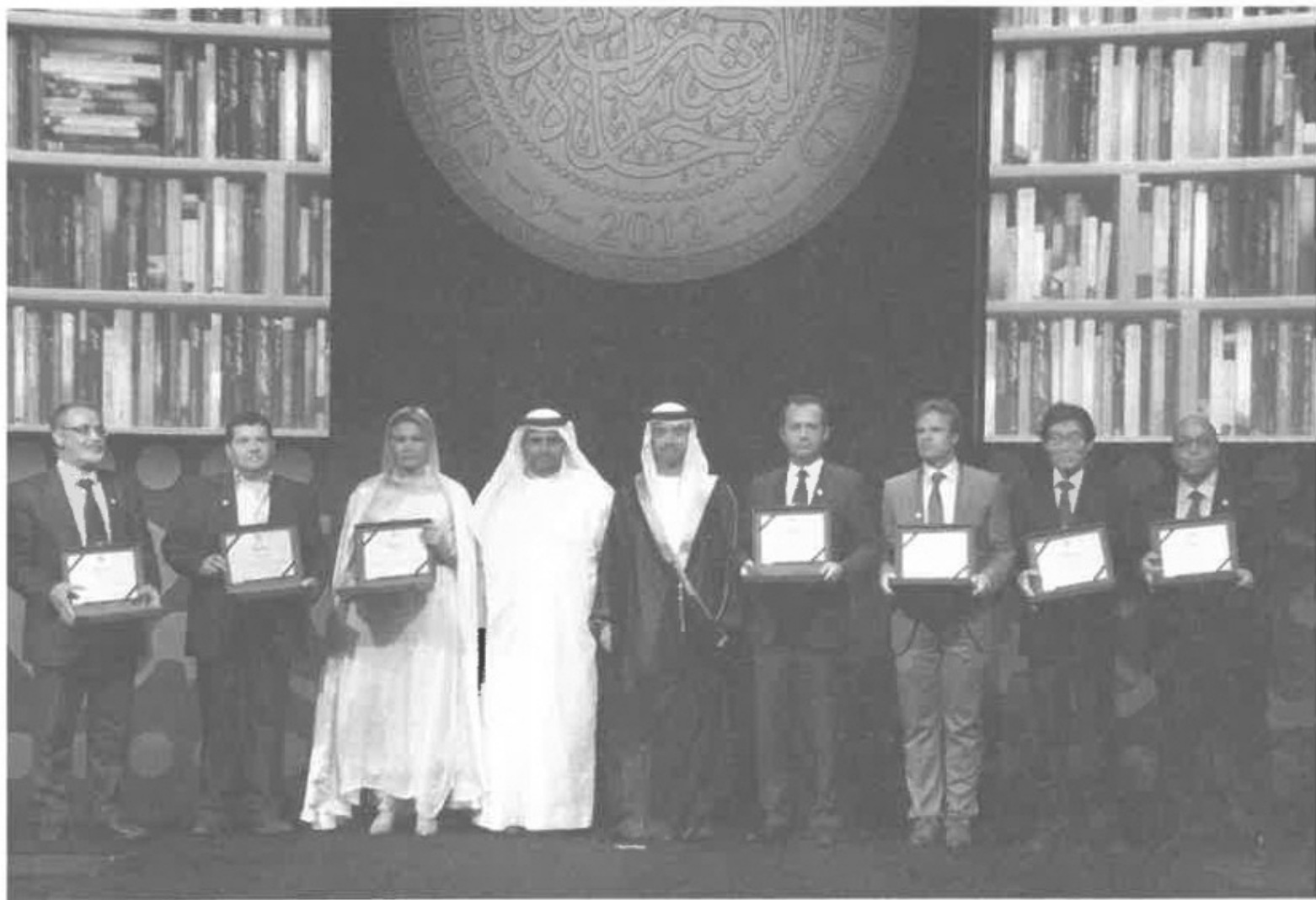
**출판도시 도시계획설명회. 2011. 12. 8.(아래)**

조합 이사들에게 '도시성과 경관계획' 이란 주제로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이정형 교수가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2012

## 출판도시가 국제적으로 공인받다

2012년은 2단계 협동화사업 건축의 원년으로, 2단계 협동화사업의 구체적인 토대를 마련한 해였다. 그 구체적 움직임으로 1월에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한미글로벌과 '좋은 협약' 체결을 하였다. 이 자리에 1·2단계 입주사 대표, 참여 건축가, 시공사 관계자와 관계기관 150여 명이 참석하여, 공동감리-공동설계-공동시공을 약속하는 대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4월에는 출판의 전 과정을 하나로 통합시켜 산업도시로 일군 그간의 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셰이크 자이에드 도서상 문화기술 부문 최고상' 을 수상하였다. 이 수상은 출판도시의 세계적 위상을 확인하고 2단계 협동화사업을 현명히 꾸려 나가기 위한 용기를 불어넣는 기회가 되었다. 더불어 5월에 있었던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50주년 행사에서 李起雄 이사장이 출판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에 대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는 출판도시 1·2단계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9월에는 대내외적으로 2단계 협동화사업의 착공을 알리는 고유제 및 인포룸 II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는,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사옥 건축을 진행하기에 앞서 2단계 협동화사업의 성공적 조성을 축원하기 위함이었다. 2단계 협동화사업의 각종 현장업무를 보다 면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출판도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문화재청의 제6회 셰이크 자이에드 도서상 문화기술부문 최고상 수상, 2012. 3. 28.**

이 상은 아랍에미리트의 국부이자 7개 부족국가를 통합시킨故 셰이크 자이에드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2006년 제정된 상으로, 중동 지역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힌다. 총 9개 부문 중 출판도시는 '공동성을 기반으로 출판의 전 과정을 하나로 통합시켜 문화산업도시로 일군 점'을 높이 평가받아 '문화 기술 최고상(Best Technology in the Field of Culture)'을 수상하고 75만 디르함(약 2억 2500만 원)을 받았다. 李起雄 이사장을 비롯하여 李煥求 상무이사, 출판도시문화재단 白仙 시설관리팀 부장, 金娟淑 기획홍보실 과장, 1단계 법문사 裴孝善 대표, 지식산업사 金京熙 대표, 온북TV 정진희 이사 등 7명이 수상식에 참석했다.



**제6회 셰이크 자이예드 도서상 문화기술부문 최고상 수상자 토론, 2012. 4. 2.(위)**

아부다비 국제도서전에서 열린 수상자 토론회에 참석한 李起雄 이사장이 출판도시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도서전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수상기념 보고회와 출간기념회, 2012. 4. 24.(아래)**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도시문화재단은 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제6회 셰이크 자이예드 도서상의 수상을 기념하는 수상보고회와 함께 李起雄 이사장의 『출판도시를 향한 책의 여정 두번째 이야기』의 출간기념회를 가졌다.



**공동감리·공동설계·공동시공을 약속하는 2단계 대토론회. 2012. 1. 18.**

李起雄 이시장, 문화체육관광부 沈長燮 국장, 한미글로벌 이순광 사장, 1단계 건설본부장인 동넵 李鍵讓 대표, 중앙대 孫世寬 교수, 중앙대 이정형 교수, 邦宰碩 이사, 金榮俊 건축코디네이터, 1단계 입주사 대표, 2단계 조함원 대표 및 대리인, 건축가, 시공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공동감리·공동설계·공동시공을 약속하는 2단계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단계 협동화사업의 공동성 정신을 실현하고자 본격적인 건축에 앞서 공동감리·공동설계·공동시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합의 각종 현안 업무 협의.**

**2012. 1. 6.(위)**

李恩 부이사장, 李煥求 상무이사, 全基奭 팀장, 高濼旭 차장, 鄭大振 과장, 金榮俊 건축코디네이터가 참석하여, 인포룸 II, 개별사옥 건축 등 조합의 각종 현안에 대해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金榮煥 지식경제위원장과 업무 협의.**

**2012. 2. 8.(가운데)**

李起雄 이사장, 李煥求 상무이사가 안산에서 金榮煥 지식경제위원장과 만나 한국출판역사박물관(가칭) 및 문화시설용지 매입, 출판도시 3단계 구상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스크린그래픽센터 착공식.**

**2012. 2. 20.(아래)**

인쇄업체인 스크린그래픽센터 현장 부지에서 스크린그래픽센터 김학준 대표 및 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조합 임직원이 참석했다. 2단계 산업시설용지의 첫 착공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공사 진행과 성공적인 준공을 기원했다.





**국토해양부 방문. 2012. 4. 12.(위)**  
 李起雄 이사장이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국 7개과 직원  
 약 6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도시  
 1단계 현황 및 2단계 계획에 대한  
 특강 및 업무 협의를 했다.

**金文洙 경기도지사의 출판도시 방문. 2012. 5. 1.(아래)**  
 金文洙 경기도지사가 출판도시를  
 방문하여, 李起雄 이사장,  
 李煥求 상무이사, 朴光成 전 이사와  
 3단계 북팜시티에 관해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2단계 건축가 워크숍. 2012. 6. 22.(위)**

李起雄 이사장, 李恩 부이사장, 조합 임직원 및 2단계 건축가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2단계 건축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조합 임직원 및 불록 건축가들이 워크숍을 진행하고 2단계 현장을 둘러봤다.

**2단계 입주설명회. 2012. 9. 12.(아래)**

영상 및 소프트웨어 업종 20여 개사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2단계 입주를 위한 사옥 건축 일정, 입주 관련 법률, 건축자금 융자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金滉植 국무총리 방문, 2012. 11. 23.**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출판도시  
 1,2단계 조성 현장을 시찰하고,  
 두성종이, 悅話堂 등 1단계 주요  
 입주사를 찾았다. 李起雄 이사장,  
 출판도시문화재단 崔善鎬 상임이사,  
 裴孝善 실행사, 입주기업협의회  
 金正善 회장, 책방거리 조성위원회  
 宋永萬 회장, 파주시 초청식 부시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 조성 현황 및 기대효과,  
 당면 문제 등을 설명하고 향후 2단계  
 협동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 모여져  
 있는 安重根 동상 앞에 선 金滉植  
 국무총리와 李起雄 이사장.(아래)





**제19회 베이징국제도서전 출판도시 홍보관 운영, 2012. 8. 27-30.**

한국이 베이징국제도서전 주빈국으로 초청받아 마련된 한국관에 경기도와 파주시의 지원으로 출판도시 홍보관을 운영해, 국제적으로 출판도시를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2단계 착공 고유제 및**

**인포룸II 기공식, 2012. 9. 14.**

조합 임직원, 1·2단계 조합원 대표,  
경기도, 파주시, LH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포룸II  
현장 및 문화시설용지에서 2단계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고유제를  
지내고, 이와 더불어 인포룸II  
기공식 행사를 가졌다.



# 2013

## 2단계 추진에 박차를 가하다

2013년에는 2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준공되고, 2단계 조합원의 사옥건축 설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장 지휘 및 조합원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로 '책과 영화의 도시 건설본부'인 書築共業記念館을 개관했다. 한편, 조성원가 세부자료 공개를 위해 국토교통부, LH공사 등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 및 민원제기를 통해 분양가를 인하하여 가격정산을 진행하였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인근 인쇄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파주출판도시를 성공적 모델로 보고 벤치마킹하고자 관련 사안에 대해 자문을 구해 왔으며, 중국 선전에서 개최된 제8회 전국복디자인에술전람회에 李起雄 이사장이 초청되어 출판도시 조성성과에 대해 강연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에서는 李起雄 이사장이 출판도시를 발의 추진하여 지식기반산업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은관문화훈장을 수여하는 등, 출판도시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해였다.



群鶴山에서 본 2단계 부지 전경. 2014.



책과 영화의 도시 건설본부가 자리한 書築共業記念館(위)과 개관식 기념사진(아래). 2013. 10. 18.

책과 영화가 만난다는 의미를 지닌 이 명호의 글씨는 중국 칭화대학교 뤼징런 교수가 朱熹의 글씨에서 集字해 주었다. 아래 사진 왼쪽부터 李恩(부이사장, 명필름 대표), 安尙秀(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날개), 金義錫(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성섭(파주경찰서장), 張會雲(에인미술 대표), 崔禎鎬(울산대 석좌교수), 安聖基(영화배우), 金宗圭(삼성출판박물관 관장), 박영국(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 金昌準(전 국회의원), 李麟載(파주시장), 李起雄(이사장, 열화당 대표), 뤼징런(칭화대 교수), 金南詐(시인), 金彥鎬(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이근삼(파주시의원), 閔賢植(건축가), 金榮俊(건축가), 康錦實(전 법무부장관), 崔善鎬(작가세계 대표), 필립 크리스토프(건축가), 플로리언 베이겔(건축가), 권대현(파주시의원), 承孝相(건축가), 양성전(목사).



**朴槿惠 대통령의 출판도시 방문.  
2013. 9. 30.**

朴槿惠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롤 모델로 평가받는 파주출판도시를 찾아 북소리행사 참관 후 입주기업체 대표들을 격려했다. 李起雄 이사장이 朴槿惠 대통령에게 출판도시 2단계 문화시설용지에 공공시설인 한국출판역사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네오프린텍 준공식, 2013. 5. 3.(위)**  
2단계 인쇄업체인 네오프린텍 사옥이 준공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시조사 건축 진행 관련 업무협의, 2013. 7. 31.(가운데)**  
書築共業記念館 회의실에서 시조사 건축 진행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출판도시 교통 현안 해결 간담회, 2013. 4. 22.(아래)**  
李恩 부이사장과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서울방향 진입로 개설, 주차난 해소, 대중교통 신설 등의 현안 과제를 협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尹相直 장관 내방. 2013. 7. 7.(위)**

파주출판도시가 문화특화단지로서의 성공 사례임을 확인하고, 향후 입주기업협의회로의 관리기관 전환 등을 논의했다.

**李起雄 이사장, 은관문화훈장 수훈. 2013. 10. 11.(아래)**

전통문화 및 미술서적 출판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파주출판도시를 기획, 추진하여 지식기반산업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영화 <건축학개론> 촬영지인 제주도 '서연의 집' 방문. 2013. 5. 20.(위)**

2단계 건설본부 정례회의 겸 제주도 일대 건축답사를 위하여 1박 2일 일정으로 답사를 진행했다.

**출판도시 3개 기관 합동 워크숍. 설악산. 2013. 11. 22.(아래)**

입주기업협의회 주최로, 출판도시 3개 기관인 파주출판단지 조합, 출판도시문화재단, 입주기업협의회 임직원들이 출판도시 구성원간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워크숍을 진행했다.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추진 설명회. 魯築共業記念館. 2013. 12. 12.

2단계 사업 추진 현황 및 지체상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추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 2014

##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다

2단계 사옥건축이 본격화함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사진을 보강했다. 또한 조합원의 현장업무를 위해 '책과 영화의 도시 건설본부'의 다양한 시설을 지원했으며, 사옥건축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민원발생을 해결하고자 매주 현장소장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안전 및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2단계 조합원 입주에 따른 출판도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및 파주시와 교통체계 보완 및 대중교통노선 신설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맡고 있는 출판도시 관리기관 업무를 (가칭)출판도시입주기업체협의회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관리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2단계 문화시설용지 내 한국출판인쇄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한 협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2단계 내 주차장 용지 6개 필지를 매입하여 2단계 조성 이후 예견되는 주차난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 이 해에 출판도시는 인프라 개선 및 디자인 혁신의 모범사례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우수디자인 산업단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3단계 북팜시티(Book-Farm City) 예정 부지.(위)**

'건강한 쌀이 건강한 사람을 만들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책을 만들고, 건강한 책이 올바른 사람을 만든다'는 핵심개념 아래, 기존의 절대농지를 보존하고 나머지 지역에 산업기능시설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해 개발한 1, 2단계와는 달리 기존의 '땅의 맥락'을 존중하는 자세에서 시작된 기획이다. 사업부지의 대부분은 농업관련시설과 절대농지이며, 나머지 15퍼센트 정도가 출판·영상, 정보통신, 방송통신의 기능으로 활용된다는 개념이다.

**북팜시티 개발을 위한 추진 준비회의. 書築共樂記念館. 2014. 1. 10.(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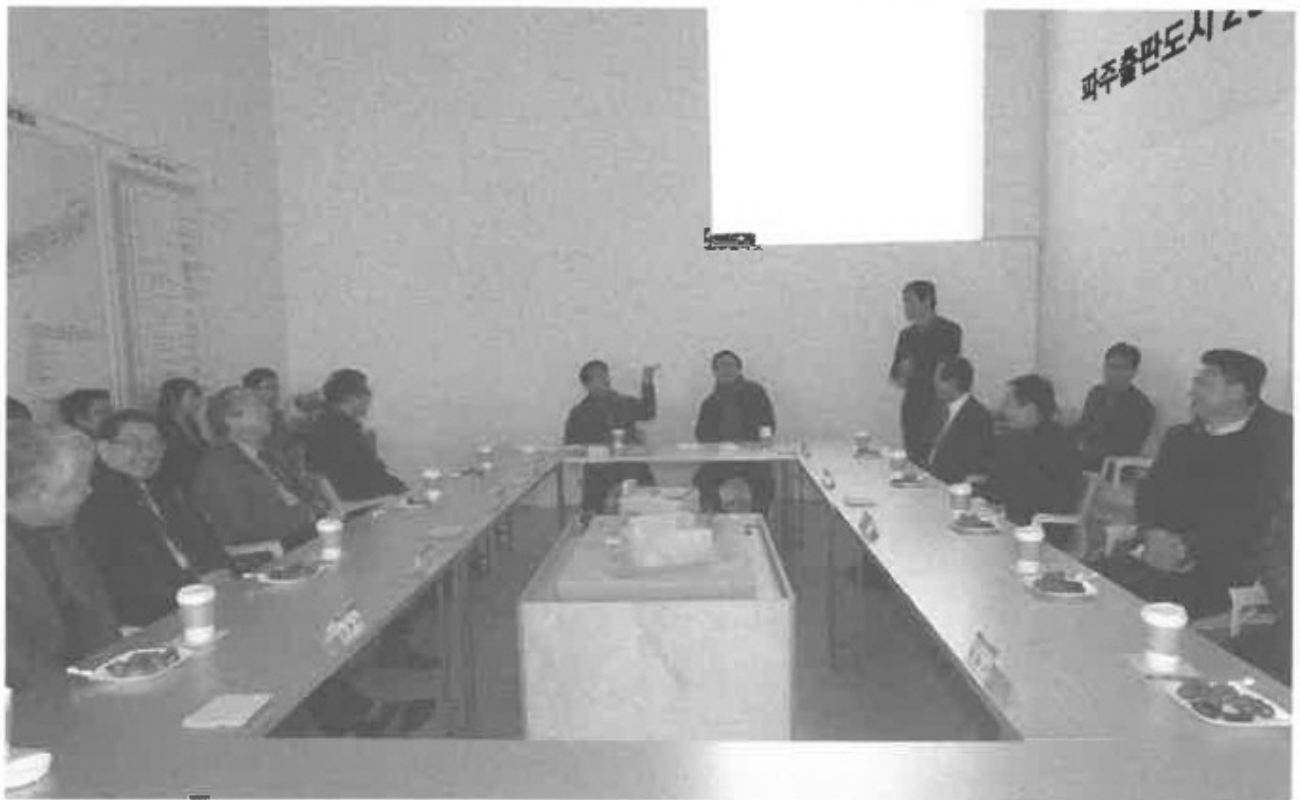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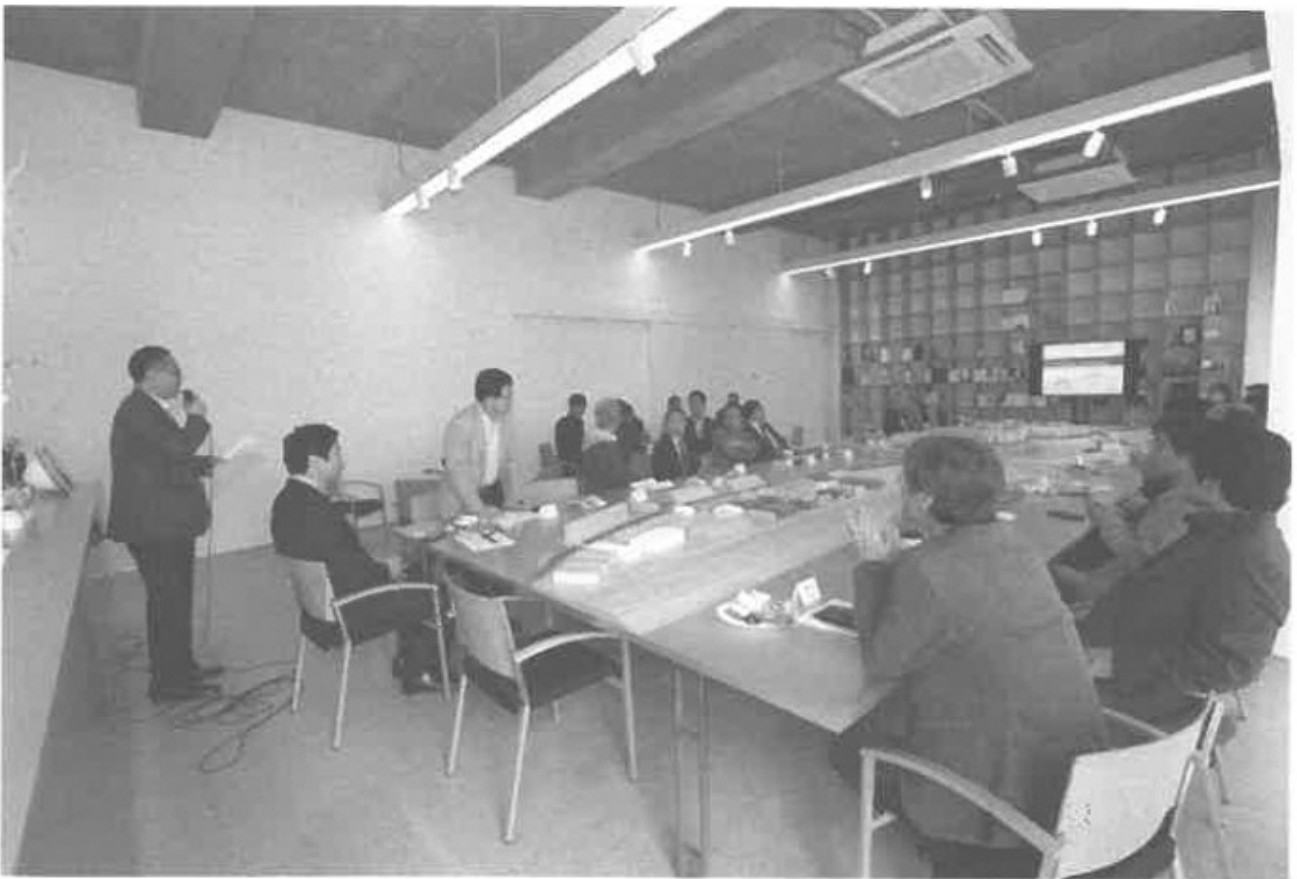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산업단지 우수디자인 최우수상 수상. 2014. 1. 21.(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국 41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디자인 혁신과 안전, 문화, 복지, 인프라 개선, 환경친화성, 조화성, 사용편의성, 기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최우수상에 파주출판도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우수상에 대덕연구단지, 광주첨단과학단지가 선정되었다. 李煥求 상무이사(오른쪽)가 수상했다.

**정기 이사회. 2014. 2. 13.(아래)**

개별 사옥 건축 진행 현황, 건축고도 제한 완화, 산업시설 용지 내 북카페 허용,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을 논의하고 부당이득반환금 사용방안, 건축촉진분담금 및 건설지체상금 부과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2단계 건축 간담회. 2014. 4. 17.(위)**

조합원들의 사옥 건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블록별 담당 건축가들과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金文洙 경기도지사, 李麟載 파주시장의 내방. 2014. 3. 14.(아래)**

사옥 건축 관련 건축설계 및 지하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영상자료원 파주센터 기공식 리셉션. 2014. 11. 5.**

기공식 후 서축공업기념관 도토리카페에서 가진 리셉션에서 환담을 나누는 영화, 출판 관계자들.  
 위 사진 왼쪽 두번째부터 李恩 명필름대표, 趙善姬 前 영상자료원장, 林權澤 영화감독. 아래 사진 왼쪽부터  
 宋永萬 입주기업협의회 회장, 申星一 등 영화계 원로, 李起雄 이사장, 金東虎 문화융성위원장,  
 金彦鎬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한국영상자료원 파주센터 기공식. 2014. 11. 5.**

2015년 10월 완공 예정인 이 센터(원장 李炳勳)는 영상자료의 보존·복원을 위한 시설로, 필름과 디지털 콘텐츠 등 영상자료 보존과 역할을 할 공간이다. 총 연면적 9092.18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지는 이 센터에는 항온·항습 설비가 구비된 매체별 보존고를 비롯해 보존·복원 작업실, 필름 인화현상실, 영화관, 영상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金東虎 문화융성위원장과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 영화인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2015

## 신임 이사장의 선출로 2단계 완성을 힘차게 기약하다

2015년 2월 26일 제25차 정기총회에서, 최초 사업 발의부터 지금까지 27년간 출판도시를 이끌어 오던 李起雄 이사장이 오랫동안 미뤄 온 퇴임을 했다. 그리고 출판도시 여러 회원들의 애정과 존경이 담긴 권유를 받아들여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되었다. 李恩 부이사장이 새 이사장에 선출됨으로써 새로운 활력으로 2단계 완성을 힘차게 기약하는 자리가 되었다.

처음 출판도시를 발의하면서 李起雄 이사장이 던졌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에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도시가 절제와 균형과 조화,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만이 갖고 있던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도시의 지침이 돼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제25차 정기총회, 2015. 2. 26.  
 李起雄 이사장이 퇴임하고  
 李恩 부이사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추대 선출되었다. 총회가 끝난 후  
 마지막 인사를 하고 조합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는 李起雄 이사장.(아래)



## 역은이의 발문

사진만큼 현실의 모습을 정확히 전달하는 방식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진 기록은 문자 기록과 더불어 중요한 일입니다.

1989년, 당시 高楊의 한 젊은 郡守는 출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록되지 않으면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 우리를 놀라게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역사는 없고 논쟁만 있을 것입니다.

이 도시는 매 순간 매 고비마다 기록되어 왔고, 철저하리만큼 기록하는 일을 챙기고자 애썼습니다. 실무자들에게 이를 강조하고 또 실천하도록 하는 일은 벅찼지만, 부족하더라도 어느 만큼 기록할 것은 기록해 놓고, 자료를 분류, 정리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은 물론, 누군가의 헌신이 없다면 절대로 발상되거나 실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도시의 계획과 실천은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므로, 지난한 일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여러 출판인들과 직원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출판도시가 지금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出版都市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기록사진들을 이 책으로 정리하면서 새삼 감회에 젖습니다. 無聲映畫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듯, 편집이 끝난 이 책의 사진들을 보니 출판도시의 역사가 走馬燈처럼 지나갑

니다. 출판도시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에 과거의 한 순간 한 순간이 소중한하고, 또 새롭습니다.

이 책에 실린 사진들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출판도시가 자라온 과정을 거칠게나마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출판도시는 기록하며 자라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그래야 합니다.

이 사진집을 위해 그동안의 기록들을 선별하여 골라내고 엮는 과정에 함께해 준 직원 및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李起雄 출판도시 명예이사장

## **출판도시를 향한 우리의 여정**

**파주 책마을 기록사진 1988-2015**

**李起雄 엮음**

**초판1쇄 발행** 2015년 3월 31일

**발행인** 李恩

**발행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312 서죽공업기념관 [www.ibookcity.org](http://www.ibookcity.org)

**등록번호** 제406-2010-000109호

**등록일자** 2010년 12월 16일

**편집위원** 이환구 유도열 이규동 전기석

**진행** 이진희

**편집** 이수정 조운형 박미

**북디자인** 공미경

**인쇄 제책** 상지사피앤비

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ISBN 978-89-967882-2-5

Our Journey to Paju Bookcity: Photographic Records of 1988-2015

© 2015 by Cooperative of Paju Bookcity

Printed in Korea